

기후	연대	자연환경과 문화			번
구석기 최후 빙하	21,000-18,000 RCYBP(방사성탄소연대)	23,500-22,500 조정 BP	최후 빙하 최고지 기간	장흥군 장동면 신북마을 고고유적지 22,000년 전(방사성탄소연대)	한 문 자
	18,000-17500 BP	최후 빙하기	최저 기온	Ohalo II 고고유적지19,400 BP /Halfan문화(18000-15000 BC)	
	14,700 BP	빅토리아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고온 가뭄	kebaran문화 18000-10500 BC	
온난	13,000-12,800 BP	대홍수 시작		Natufian문화(13000-9800BC) Komsa 문화(10000 BC경)	(조 치)
한랭	12,800-11,500 BP			Khiamian(10,000-9500BC/10200-8800 BC)	한 문 자
온화	11,500-11,000 BP	대홍수	그루지야 동부 Kakheti(, 그루지야 어 Mkhare) 지역의 Kakh인 등장(?)	Tahunian (8800 BC)	
한랭	11,000-10,250 BP			Kunda문화(9000-5000 BC)	
대륙성 따뜻함1차(Pre Boreal)	10,250-9450 BP	Preboreal (10.3ka-9ka)	메소포타미아 저지대 (Fertile Crescent)에서 Nakh인 코카서스 산맥으로 이주 (10,000-8,000 BC)	8040-7510 BC 카누 등장	한
대륙성 따뜻함2차 (Boreal)	9450-8150 BP	Boreal (9ka-7.5ka)		Bug-Dniester문화(6300-5500 BC)/ Karanovo 문화(대략 62nd-55th 세기 BC)/Narva(, or Baltic 동부) 문화(5300-1750 BC)	한
해양성 매우 따뜻 함 / 3 차 (Atlantic)	8150-5250 BP	7000±500 BP 기간은 현재보다 2℃ 높음	대략 9,000년 전 현재 해안선 형성	Hamangia문화(5250~5200 BC - 4550~4500 BC)	한
		Atlantic(7.5ka-5ka):기온 최상승, 이 이후 하강 BC 3400 아프리카에서 기온 하강의 변화 시작	인도유럽어 공통조어에서 분리 5000-4000 BC/ 히타이트 어 분리 BC 4200/그리스 어 분리 BC 4100/원시한국어와 만주어분리 6200-5500 년 전	Samara 문화(5000년대 말-4천년대초BC)/Srendy Stog(Derevika) 문화 (4 천 년 대 , 4000-3500BC)/Boian문화 (4300-3500BC)/Dnieper-Donets 문화(대략 4000년대-3000년대 BC)/Usatovo문화(3500-3000 BC)/Maykop문화(3700-2500 BC)/Yamna 문화(3500-2000 BC)	한 문 자
	5100 BP	13.9℃ 정도에서 최저점 찍고 다시 상승	라틴 어 분리 BC3500/ 산스크리트 어 분리 BC3000	이집트 선왕조(대략 3050-2686 BC)	한
	4600 BP	Subboreal(5ka-2.5ka) 12.9℃ 정도에서 최저점 찍고 다시 상승	고대 교회 슬라브 어 분리 BC 2900/한국어-일본어 분리 4600년 전	이집트 고왕국 . (2686-2181 BC)	한
	3100 BP	13.7℃ 정도에서 최저점 찍고 다시 상승		중왕국(2134-1690 BC) 신왕국 (1549-1069 BC)	한 문 자
		Subatlantic (2.5ka-present)	한 문화의 부활	마지막시기(672-332BC) 헬레니즘시기332-30BC).	조/조 (한 , 한)

도표19. (기후 문화 언어 연대표)

제4장 유라시아 문화사

유라시아의 인류문화사를 크게 서(西)유라시아 문화권과 동(東)유라시아·한국어 문화권으로 나누고, 오래된 인류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산/강/호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서(西)유라시아 문화권

(1)산(山)

1)우랄 산맥(Ural Mountains)

유라시아를 동과 서로 나누는 우랄 산맥은 11세기부터 러시아인들에 의해 돌산(,"stone")으로 불리어오다가, 16세기 중엽 17세기 초 산맥의 남부 지역이 Ural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Ural'은 산맥 전 지역을 부르는 말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Belaya 강 중류 지역 Ufa에 수도를 둔 Bashkortostan 공화국의 전설에 따르면, 우랄 산맥의 이름은 이곳의 원주민인 투르크 계 Bashkirs 족의 전설적 영웅 { Ural-batyr 또는 Ural-batır ([u'ral ba'tɨr], Ural + Turkic batır-"hero, brave man") }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전설적 영웅 Ural-batyr ([u'ral ba'tɨr])의 '우랄(Ural)'의 기본형은 Ur인데, 이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영어 **Ur**[júər-] ①(연결형) 「원시의」 「초기의」 「원형의」의 뜻, ②(연결형) 「꼬리; 꼬리 부분; 후미 돌기」의 뜻. (모음 앞에서는 ur-), **uro**[júərou-, -rə-]-①(연결형) 「오줌」의 뜻, ②(연결형) 「꼬리」의 뜻에서 찾을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의미는 헝가리 어 **úr**(진공,공간,우주), **úr**(lord,sir, mister), **uram**(선생,mister), **ural**(지배,dominate)에서 찾을 수 있다.

úr과 **úr**을 합친 것이 '신인(神人)·천자(天子)·왕·전설적 영웅'의 뜻이고, 이를 사물로 상징화하여 나타낸 것이 *Ūruz (,"aurochs", "wild ox") (또는 *Ūraq "water") 인데, 이 말은 나중에 고대고지대 게르만 어(OHG) **ūr**와 **ohso**(,"ox")가 결합되어 ūrohso로 되었다. 그리고 13세기에 이중모음화 현상을 겪으면서 Ur는 Auer로, ohso는 -ochs로 되어, ūrohso는 Auerochs/Auerochse로, 라틴 어로는 Urus로 표기되었다.

*Ūruz(,"aurochs", "wild ox")와 *Ūraq(,"water")는, 하늘에 떠 있는 비구름(*Ūraq(,"water"), *Ūram(,"water"))을 소(*Ūruz;"aurochs", "wild ox")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소와 매우 밀접한 생활을 하였던 사람들이 남긴 문화어이다. 그들은 하늘에 떠 있는 비구름이 비가 되어 지상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천우(天牛)가 오줌을 싸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여기서 "**ur** ②(연결형) 「꼬리; 꼬리 부분; 후미 돌기」의 뜻. (모음 앞에서는 ur-), **uro**[júərou-, -rə-]-①(연결형) 「오줌」의 뜻 ②(연결형) 「꼬리」의 뜻"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랄 산맥의 이름이 아랄 해와 관련 있다고 보기도 하는 것은, 아랄(Aral) 해는 천우(天牛)aurochs (/ˈaʊrɒks/ or /ˈɔrɒks/)의 오줌이 떨어져 고인 곳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우랄 산맥의 이름이 소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곳으로 소가 온 역사를 살펴보면, 야생 소는 2백만 년 전 인도에서 나타나 진화를 하였는데, 27만 년 전 유럽에 도착 하였다. 북중국·몽골·한국·일본에서 발견되는 aurochs는 35,000년 전 근동에서 분화된 것이

다. 그리고 근동과 아프리카에서는 15,000년 전쯤 가축화되었고, 인도에서는 8,000-10,000년 전 가축화되었다.

이를 참고하면 35,000년 전 근동에서 ūrohs/aurochs(얼룩소)의 뒤를 따라 이동한 사람들이 한국 지역으로 와서 남긴 말이 한국어 ‘우람하다’(雄大壯嚴だ)이고, 우랄 산맥을 타고 북쪽으로 가면서 남긴 말이 Ural이고, 헝가리 지역으로 가서 남긴 말이 **úr**(진공, 공간, 우주), **úr**(lord, sir, mister), **uram**(선생, mister), **ural**(지배, dominate)이다. 이를 통해 헝가리 어와 한국어의 관계는 30,000-35,000년 전에 분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우랄 산맥 일대를 중심으로 한 역사는 대략 35,000년 전부터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투르크 계 Bashkirs 족의 전설적 영웅 Ural-batyr은 ‘우람한 소와 같은 용사’로 번역할 수 있고, 원(原)계르만 어 Ur은 35,000년 전 우랄 산맥 지역으로 진출하였던 사람들이 불가 강 줄기를 타고 서쪽 초원지대로 이주하면서 남긴 말로 볼 수 있다.

2)엘브루스(Elbrus) 산

카프카스(Kavkaz, Caucasus) 산맥의 서북쪽은 흑해를 기점으로 하는 북방초원 지대이고, 동북쪽은 카스피 해를 기점으로 하는 북방초원 지대이고, 남쪽은 아프리카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아나톨리아·아르메니아 고원·중동 지역’이다. 그래서 이 산맥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문화·서(西)유라시아 문화·동(東)유라시아 문화’가 서로 만나는데, 이 산맥의 가장 높은 곳이 엘브루스(Alborz, Alburz, Elburz 또는 Elborz) 산이다. 그런 만큼 이 산은 아프로-유라시아(Afro-Eurasia) 문화권의 중심축이기도 한데, 서쪽 봉우리(5,642m)와 동쪽 봉우리(5,621m)로 이루어져 있다.

3)아라라트(Ararat) 산

아라라트 산은 오늘날의 터키와 아르메니아 평원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대 아라라트(5,137m) 봉과 소 아라라트(3,896m) 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큰 산은 천주(天柱)로 신앙의 중심이 되게 마련이다. 지중해·흑해·카스피 해·페르시아 만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아라라트 산을 문화와 민족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아르메니아이다. 고고학적으로 아르메니아 지역에서는 BC 4000 경 초기 청동기 문명이 있었고, 세계 최초의 것으로 보이는 가축신/치마/포도주 제작 기구들이 발굴되었다.

아르메니아의 원주민들이 살았던 지역의 이름이 Hayk’이고, 아르메니아 인을 **h**(hay, "an Armenian"), **h**(hayk', "Armenians")으로 부르는데, ‘**h**(hayk', "Armenians")’ 음이 들어가는 것으로 **h**소스(Hyksos) BC 17세기에 나일 강 유역으로 점차 침투해 들어와 결국 하(下)이집트를 다스리게 된 셈족과 아시아인들의 혼합 집단 족이 있었다. 역사가 Mikayel Chamchian의 연대기에 따르면, 19-18세기 BC로 추정되는 Haik으로부터 6-7세대 다음에 Urartu 지역의 Arame(Aram)가 있었다.

이를 참고하면 ‘**h**(hayk', "Armenians")’은 19-16세기 BC에 활동한 것이 된다. 이 시기는 히타이트(Hittites, 18세기경-1180 BC-8세기 BC)가 활동을 하던 초기였다. 이 시기

에 아나톨리아 고원과 아르메니아 일대에는 ‘ḥ>ḥ(hay)’ 문화가 성행하였던 것이다.

hay/hayk‘ 다음으로 나타난 것이 Arame이고, 이를 계승한 것이 현재의 국명 Armenia이다. Armenia는 ‘ḥḥḥ(Harminuia)>ḥḥ(Arminiya)’를 나타내니, ‘전투력이 강한 강대국’이란 의미가 있고, 이 이름은 아시리아 어로 Urartu로 번역되었는데, Urar은 Ural("dominate")로 표기할 수 있고, 이는 군사강대국을 뜻하는 Armenia의 다른 표현이다. Armenia의 어원: arma { *h₂ er- ("to join")>*h₂ (e)rmos ("fitting")> arma ("weapons of war, war, defence, tools") }에서 army(군대), arms(무기), arm(팔)이란 단어가 파생되었다.

따라서 이를 통해 Urartu 최초의 왕으로 알려진 Ara가 Arame 또는 Aramu (Armenian: Արամ) (재위 858–844 BC)로도 불렸던 것은 그의 군사적 지휘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ḥḥḥ(Harminuia)>ḥḥ(Arminiya)’를 볼 적에 Ararat는 Hararat로 복원할 수 있고, Hara는 엘브루스 산의 원(原)이란 어 이름 Harā Brzati에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라라트 산 역시 엘브루스 산과 같이 ‘ḥḥ’ 문화권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중세 시대 아르메니아의 역사가 Moses of Khoren는 아라라트 산의 이름은 Ara왕의 이름을 따서 붙인 Ayrarat 평원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하였고, Ayrarat는 아시리아 어로 Urartu(Armenian: Ararat), 고대 페르시아 어로 Arminiya, Elamite 어로 Harminuia로 불리었는데, 이 지역은 Biainili, Biaineli, "Van"으로 불리기도 했었다. 현재 아르메니아 인은 이 산을 Hayk 왕의 손자 Amasya(=A+ masya)의 이름을 따서 Masis로 부르고 있다.

4)알보르즈(Alborz)·다마반드(Damavand) 산·자그로스(Zagros) 산맥

①알보르즈·다마반드 산

오늘 날 이란 지역의 북쪽에는 알보르즈(Alborz, also written as Alburz, Elburz or Elborz) 산맥이 아제르바이잔 국경 지역에서 카스피 해 연안을 따라 동쪽으로 뻗어내려 Khorasan 주의 북쪽에 있는 Aladagh 산맥으로 들어간다. 코카서스 산맥의 엘브루스(Elbrus) 산의 이름은, 이곳 알보르즈(Alborz) 산과 호르무즈 해협 위에 있는 Kerman 지역의 Elbariz (Albariz, Jebal Barez)산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란 지역이 ‘엘브루스(Elbrus)’문화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알보르즈 산맥의 서쪽 지역은 보통 Talish 산맥으로 불리고, 알보르즈 산맥의 중앙에 위치하며 중동과 이란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은 Damavand이고, 이란 남부 자그로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은 자르드쿠 산(Zard Kuh: 4,548m 또는 4,200m) 혹은 데나 산(Dena: 4,409m)인 것을 볼 적에, 이란 북부 지역에는 ‘ḏḥ(Dama, Dena)’문화, 남부 지역에는 ‘ḏ’(Zard) 문화가 넘쳤던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alish 산맥의 이름을 통해 이란의 서쪽 지역은 아나톨리아 고원의 ‘ṭṭṭ(Toli) 문화권에 속했었음도 알 수 있다.

이란 신화와 민간 전설, 시와 문학에 있어 Damavand 산은 전제폭정과 외국인의 지배에

저항하는 상징적인 곳이다. 조로아스터교의 경전과 신화에는 이곳에 삼두룡(三頭龍) Aži Dahākark가 세상의 종말 때까지 묶여있고, 같은 전설의 후기 판본에는 폭군 Zahhāk이 Kāveh과 Fereydūn에 의해 패한 뒤 이 산의 어느 동굴에 묶여 있다고 되어 있다. Damavand는 드미 문화인이 이 산을 그들의 천주산으로 불렀던 적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Aži Dahākark의 Aži(, 주격 ažiš)는 뱀 또는 용을 뜻하는 아베스탄 어인데, 베다의 산스크리트 어 ahi(, "snake")와 같은 말이다. 그리고 dahāka의 어원은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이는 ‘드헝+ ㅅ’로 분석된다.

②자그로스 산맥(Zagros Mountains)

자그로스 산맥의 서쪽은 이란과 이라크의 경계가 되는 디알라 강 부근이고 동쪽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Zagros Folded Zone을 참고하면, 이 산맥은 지중해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연결하는 거대한 장벽으로 Ziggurats (/ˈzɪɡəræt/ ZIG-ər-at; Akkadian ziqqurat, D-stem of **zaqāru** "to build on a raised area")의 **zaqāru**에 걸 맞는 지형이고, Zagros는 zaqāru의 파생어이다. 검색창:Zagros Mountains

그런 만큼 이 산맥을 경계로 아프로·중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문화가 달라지는데, 고온기에 아프리카를 떠난 인류가 처음으로 정착하였던 시원한 고원지대였던, 이곳 문화의 기층에는 아프리카 문화가 많이 남아 있다. 자그로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곳은 자르드쿠 산(Zard Kuh: 4,548m 또는 4,200m) 또는 데나 산(Dena: 4,409m)이다. Zard Kuh(meaning "Yellow Mountain", also spelled Zardkuh or Zard-e Kuh-e Bakhtiari; Persian: زردکوه بختیاری)의 ‘Zard’는 아프리카 이그보 족의 왕을 칭하는 Eze(=E+Ze)와 관련 있고, 이 지역의 기층문화는 쯔(Za, Ze, Chi, Che)이다.

그런 점에서 Zard Kuh는 왕산(王山)으로, Zagros 산맥은 천산산맥(天山山脈)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 산을 Kolunchin으로도 부르는데, 이 산에서 발원하여 내려가는 강의 이름이 Koohrang (, Kouhrang, Kurang)인 것으로 보아, Kolunchin은 ‘ㅅㄹㄹㄷㄷ’으로 표기할 수 있고, 이것과 비슷한 이름으로 파키스탄의 카라치(Karachi is also known as City of Lights)가 있다. 이곳에는 쯔/츠 문화 위에 ㅅㄹ 문화와 얹혀 있다.

대홍수로 인해 지형이 안정되기 전과 그 이후 고온기에는 고원지대가 생활에 적합하였기 때문에, 이 산맥 자락의 Anshan과 Susa에는 BC 9000년대의 농경문화가 전개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고, Hajji Firuz Tepe와 Godin Tepe에는 BC 3500과 BC 5400 시기의 포도주 저장소의 흔적도 남아 있다.

그리고 4000-3500 BC를 고비로 기온이 내려가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생활에 적합한 곳이 되었고, 고원 지역의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류 저지대로 이주하여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이것이 수메르 문명의 시작이다. 동시에 카프카스 산맥 주변 지역의 고위도 초원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은 기온 하강 때마다 아나톨리아 고원·아르메니아 고원·이란 고원·자그로스 산맥 지대로 이주하여 왔다.

특히 2600-2500 BC 사이의 기온 하강기에 북방 초원지대의 많은 사람들이 남하하였

는데, 오늘날 이란인의 조상이 되는 아리안의 남하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들은 초원지대에서 ‘엘브루스 산’ 중심의 문화를 이루었었고, 아리안이 오늘날 이란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자그로스 산맥 지역에도 Elbariz (Albariz, Jebal Barez)산의 이름이 남게 되었다.

5)아나톨리아 고원 검색창:Anatolia

6)카르파티아 산맥(Carpathian Mountains or Carpathians), Valdey Hills

①Carpathians

카르파티아 산맥은 유럽에서 스칸디나비아 산맥(1,700km/1,056m) 다음으로 긴 산맥(1,500km/932m)이고, 후기구석기의 Aurignac 문화와 신석기의 Bug-Dniester 문화는 이 산맥의 동남쪽 지역에서 발달하였다. "Carpathian"이라는 말은 이 산맥의 동쪽 산록에 살고 있는 Daci 종족의 일부분인 Carpi 부족의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Carpi의 어원은 *sker-/ker-("peak" or "cliff")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헝크브>홀브, 쿨브, 슬브’에서 비롯되었다.

트라키아 어 Karpates oros("rocky mountain"), 알바니아 어 karpë ("rock"), 슬라브어 skála ("rock, cliff")는, ‘바위 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산이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바위(산)에 하느님의 영혼이 깃들기 있다는 석기 시대의 종교관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의 <Hervarar saga>에는 Harvaða fjöllum으로, 13-15세기 헝가리 기록에는 Thorchal, Tarczal 또는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Montes Nivium으로 자주 언급되었다. 라틴어 Nivium은 눈(雪)이란 뜻으로 영어 snow, 터키어 kar, 폴란드어 śnieg, 헝가리어 hó, 우크라이나어 snih, 알바니아어 borë으로 번역된다. 이를 참고하면 카르파티아는 ‘눈 덮인 암산(巖山)’ 정도로 번역할 수 있고, 알바니아어 borë를 통해, 이 산맥은 ‘보라’ 바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후기 구석기 시대 ‘헝크’ 문화를 고려할 때, 이 산맥의 처음 이름은 Harvaða fjöllum, 즉 ‘헝크브드(達[dá,tà]땅,산)’이었고, 이것이 기온 상승으로 봄소리 기후조건이 되면서 Karpates oros ‘헝크브드>쿨브드’ 산으로 되었고, 더 기온이 상승하면서 여름기후조건이 되자 드 문화의 톱 산맥(Thorchal, Tarczal)으로 불리었던 것이다. 헝가리 기록의 Thorchal, Tarczal은 아마도 트라키아(Thrace /Θreɪs/ (demonym Thracian /Θreɪfʲɪən/; Ancient Greek: Θράκη, Thrāikē; modern Greek: Θράκη, Thráki; Bulgarian: Тракия, Trakiya; Turkish: Trakya)와 관계있을 듯한데, 이것을 달리 표기하면 ‘톱’이 된다. 아마도 중앙아시아의 톱(Turk) 문화족이 진출하여 남긴 말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트라키아 어 Karpates oros에서 oros는 산(맥)이란 뜻인데, 이는 제주도 어 ‘오름’과 일치하기에, ‘헝크브드(Harvaða)>쿨브드(Karpates)’의 의미는 원(原)한국어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헝크브드’는 ‘하르방의 땅’이고, 이를 굳이 재번역하면 ‘백발을 한 할

바님의 산, 시조의 땅, 조상(祖上)이 계시는 곳' 정도가 될 것이다.

이 모습을 나타낸 말이 북유럽 신화 오딘의 다른 이름 Hárbarðr(,Harbard; "Hoary Beard, Grey Beard")이고, Hárbarðr의 종교적 의미를 나타낸 이름이 Alföðr(,Alfodr: "All father, Father of All")인데, 이는 'ᄃᆞᆫ>ᄃᆞᆫ(Hárbarðr)>ᄃᆞᆫ(Hárbarðr)'의 음변화를 거친 단어이다. 이렇게 제주도 하르방의 땅, '할라산'을 동유럽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은, ᄃᆞᆫ브 문화인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Valdey Hills

동유럽 평원은 북극연안의 백해와 Barents 해, 우랄 산맥, 우랄 강, 카스피 해, 카프카스 산맥과 흑해, 발트 해, 폴란드의 Carpathian 산맥과 다른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 넓은 동유럽 평원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 Valday Hills(346.9m)인데, 이곳에서 발원한 강들은 카스피 해(볼가 강), 흑해(Dnieper 강) 그리고 발트 해(the Msta and the Lovat via the Volkhov, the Syas via Lake Ladoga and the Neva, and the Daugava)로 흘러간다. 카스피 해에서 볼가 강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Valday Hills에 도착하고, 이곳에서 Ladoga 호로 흘러내리는 강물을 따라 가면 Ladoga 시를 거쳐 발트 해로 간다.

그리고 흑해에서 Dnieper 강을 따라 올라가면 Valday Hills에 도착하고, 이곳에서 발트 해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동유럽과 북유럽, 러시아 초원지대를 연결하는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Valday Hills이다. 고대 러시아 어 Volgydo(,"bright")를 참고하면, Valday는 'ᄃᆞᆫ>ᄃᆞᆫ'이니, Valday Hills을 한국식 지명으로 변환하면 '천등산(天燈山) 박달재'가 된다. 아마도 Valday Hills 일대에 살던 사람들이 한반도에 정착하여 남긴 것이 '천등산 박달재'일 것이다.

7)알프스 산맥(Alps)

Alps는 그리스 어 "Alpes"의 영어식 표기이다. "Alpes"는 인도유럽어에서 기원된 말이 아니고, 지중해 지역의 산맥과 높은 산들을 부르는 보통 명사 같은 단어였다. 켈트(Celts) 족은 모든 높은 산들은 Alpes로 불렀다. 'ᄃᆞᆫ브' 문화인이 엘브루스 산(ᄃᆞᆫ브 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라 발음을 'ᄃᆞᆫ브>ᄃᆞᆫ>ᄃᆞᆫ'로 발음하면서 알프스 산맥을 지나 스코틀랜드 지역까지 갔다. 그 과정에 이들은 높은 산은 모두 신의 이름 'ᄃᆞᆫ'로 불렀다. 로마시대의 "Albania"라는 말은 동부 코카서스 지역을 칭하는 말이었고, 영어 "Albania" (or "Albany")는 때때로 스코틀랜드를 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그래서 현재 발칸반도에 있는 국가 알바니아(Albania)의 이름은 'ᄃᆞᆫ'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8)Kebnekaise, Galdhøpiggen, Halti

서유라시아의 서쪽 끝 지점인 스웨덴의 가장 높은 산은 Kebnekaise(['kɛbnəkaisə])산(2,104m)이고, 노르웨이의 가장 높은 산은 Galdhøpiggen/갈회피겐 산(2,469m)이고, 핀란

드의 가장 높은 산은 Halti 산(1,324m)이다. 이 세 산봉우리 사이에 발트 해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중에서 Halti는 ‘헝르드’이니, 헬싱키와 함께 ‘헝르’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지역은 지구 고온기에 살기 좋은 피서지역이어서, 고온기 마다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지역 사람들이 몰려들어 문화를 남겼는데, 그것은 북유럽 신들의 이름과 200개가 넘는 Odin의 이름 《wikipedia: List of names of Odin》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2)수(水)

1)카스피 해 주변 초원 시대

현재 세계 최대의 내륙 호수인 카스피 해로 흘러드는 큰 강은 볼가 강·우랄 강·테레크 강이며, 볼가 강은 Valdai Hills과 우랄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강물로 이루어진 유럽 최대의 강이다. 우랄 강은 우랄 산맥의 크루글라야 산 근처, 테레크 강은 조지아(그루지야) 북부의 북카프카스 산맥 카스베크 산이 발원지이다.

①카스피 해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Caspian sea라는 말은 아제르바이잔 Transcaucasia 지역에 살았다가 사라진 Caspi (Aramaic: Kspy, Greek: Kaspioi, Persian: کاسپی) 족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랄 해와 카스피 해 북부 사이 일대에 걸쳐 살았던 Albanians (Prototurks of Azerbaijan)의 영토 역시 Caspi 족의 이름에서 유래된 Caspiane 지역으로 불리었다. 이는 이 일대에 ‘카스’를 믿는 ‘무리:브(Caspi)’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스’의 뜻은 투르크 어 qas- ("tyrannize, oppress, terrorize")에서 찾을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카스’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이들과 다른 이름의 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거대한 바다 호수의 이름도 다르게 불렀는데, 대체로 투르크 계통의 사람들은 ‘헝줄’로 불렀다. 투르크계 언어인 투르크멘 어로는 **Hazar deňizi**, 아제르바이잔 어로는 **Xəzər dənizi**, 현대 투르크 어로는 **Hazar denizi**라 한다. Hazar과 Xəzər는 7-10세기에 카스피 해 북부 지역을 장악하였던 거대한 제국 Khazar Khanate 또는 Khazaria을 통치하였던 하자르(Khazars)족의 이름에서 비롯되었고, denizi는 바다란 뜻이다. 페르시아 어로는 Daryā-i Xazar, Daryā-i Māzandarān으로 표기되는데, Māzandarān(=Mā+ **zanda**+ rān)은 ‘즈(Ze)/즈ん(Zan)’문화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하자르(Khazars)(Turkish: Hazarlar, Tatar: Xäzärlär, Hebrew: מִיְרְזִיק (Kuzarim), Arabic: خزر (khazar), Russian: Хазары, Persian: خزر, Greek: Χάζαροι, Latin: Gazari/Cosri/Gasani)의 어원에 대해서는 투르크 어 qaz- ("to ramble, to roam")와 qas- ("tyrannize, oppress, terrorize"), Uyğur Toquz Oğuz 부족들 중의 한 족인 Gésà와 Qasar, 또는 Toquz Oğuz족의 Sikari 부족장의 성씨 Gesa/Qasar, Tūjué **Kěsà** bù:突厥可薩部; Tūjué **Hésà**:突厥曷薩) 등과 결부시켜 연구되고 있다.

하자르의 언어는 어느 알려진 말과 다르다고 한다. 이는 이들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인데,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 중앙 협곡(Rift Valley)의 Eyasi호 일대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Hadza, 또는 Hadzabe 부족이 있다. 이들의 언어는 다른 어떤 언어와 관련 없는데, 발성법에 입천장을 혀로 치는 clicks 현상이 있어 전통적으로 코이산 어군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들의 조상은 어느 시기엔가 탄자니아를 떠났을 것이고, 카스피 해 주변에 정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 또는 이들의 문화를 수용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자르(Khazars) 족이 되었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왔기에 주변의 다른 언어와 연관되지 못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Hadza, 또는 Hadzabe 족과 카스피 해 주변의 Khazars 족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들의 신과 왕의 명칭이다. 아랍 어 자료에는 하자르(Khazar) 왕국의 소왕(the lesser king)은 **īšâ**, 대왕(the greater king)은 **Khazar xâqân**으로 전해진다. 소왕은 행정과 군사적인 일에 주력하고, 대왕은 성례(聖禮)적인 일에 주력하며 일상적인 일에는 덜 관여하는데, 은퇴 후에는 귀족들에 의해 천도(遷度)된다. 대왕 xâqân은 **ᄒᆞᄃ**의 존어 **ᄒᆞᄃᆫ**을 나타낸 것이고, 소왕 **īšâ**는 아프리카의 ‘**ᄒᆞᄃᆫ>ᄒᆞᄃᆫ**’에서 유래된 말인데, **ᄒᆞᄃᆫ**은 Hadza족의 말 Ishoko (“sun”)에서 볼 수 있다. **ᄒᆞᄃᆫ(xâqân)**은 ‘**ᄒᆞᄃᆫ>ᄒᆞᄃᆫ>ᄒᆞᄃᆫ**’으로 볼 수 있고, **ᄒᆞᄃᆫ**은 Hadza로 연결된다.

카스피 해의 이름 **ᄒᆞᄃᆫ(Khazar)**은 극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주해온 Haplogroup C3 투르크 계통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ᄒᆞᄃᆫ(Khazar)**은 Haplogroup C3의 고향과 가까운 만주 아무르 강변에 살고 있는 [xədzən](Hezhe nai) or хэзэньи(Hezheni)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黑斤”(Heijin), “赫哲哈喇”(Hezhehala)로 기록되었고, [kilən]으로도 자칭하였다. [kilən]은 아프리카 Hadze족의 구전 역사에 나오는 Akakaanebe 또는 **Gelanebe**(“ancestors”)와 카스피 해를 고대 아랍 자료에 **Baḥr Gilan**(“the Gilan Sea”)이라 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Baḥr Gilan**은 카스피 해 동남 지역 이란의 Gilan, Mazandaran 그리고 Golestan 주의 지명에서 유래된 이름인데, 이 지역 가까운 곳에 Hatti, Hittite 족이 살았었다.

그리고 **ᄒᆞᄃᆫ** 족의 조상인 여진족이 세운 금(金)(Jin Dynasty 1115–1234)을 고대 Jurchen 어(여진 어)로는 Ancun이라 하였는데, 청대의 만주 족 표준발음으로는 Aisin이라 하였고, 한자로는 애신(愛新)으로 표기되었다. 국명 **ᄒᆞᄃᆫ**은 ‘**ᄒᆞᄃᆫ/ᄒᆞᄃᆫ(Aisin)**’을 번역한 것이다. 서울 한강변에 있는 고구려 **아차** 산성의 원래 이름 아단(阿旦[ā,á,ē][gàn])의 사성음 [ā,á,ē][gàn]에서 볼 수 있듯이, Aisin은 **ᄒᆞᄃᆫ**을 ‘**ᄒᆞᄃᆫ/ᄒᆞᄃᆫ/ᄒᆞᄃᆫ/ᄒᆞᄃᆫ**’으로 발음한 것 중의 하나이다. ‘**ᄒᆞᄃᆫ/ᄒᆞᄃᆫ**’은 ‘**ᄒᆞᄃᆫ/ᄒᆞᄃᆫ**’의 존어이고, 아침에 떠오르는 금빛 찬란한 광명을 나타낸 말이 ‘**ᄒᆞᄃᆫ**’이고, 이를 한자어 금(金)으로 나타낸 것이다. {국명 **ᄒᆞᄃᆫ(金, Aisin)**과 **ᄒᆞᄃᆫ**, 하자르 왕국의 소왕 **īšâ**, Hadza 족의 Isoko}는 {만주 여진족과 카스피 해 주변 투르크 인, 아프리카 Hadza 족}이 문화적으로 서로 연결됨을 보여주는데, 특히 하자르 왕국과 여진족은 인종적인 면에서 Haplogroup C3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카스피 해 주변의 Khazars 족과 만주의 Hezhehala의 조상들은 서로 같은 족이었거나, 같은 ‘**ᄒᆞᄃᆫ/ᄒᆞᄃᆫ**’ 문화권에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역사 문화적 뿌리는 아프리카의 Eyasi 호 부근에 살고 있는 Hadze 족에서 찾을 수도 있다. Hadze 족 조상의 이주가 아프리카에서 카스피 해 일대로 이동하여 정착하였고, 이들의 일부 또는 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중동 일대에서 Haplogroup C로 발전한 후 유라시아 동남해안을 따라 신라 지역과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여, ‘헝궤 또는 헝즈(<헝드>’문화를 이어온 것이, 신라의 혁거와 만주의 [xədzən](Hezhe nai) or хэжэн ы (Hezheni)인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 카스피 해, 신라, 만주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명칭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혁거세’(赫居世[hè][jū][shì])는 헝궤 또는 헝즈(<헝드>), 대왕 xâqân의 단어 음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혁거세 거서간의 ‘거서’는 투르크 어 의 qaz- (, "to ramble, to roam") · qas- (, "tyrannize, oppress, terrorize")와 음훈이 일치한다. 이를 참고하면 하자르(Khazars)의 어원은 {헝헝>헝헝, 헝궤, 헝스>헝드>헝즈>Khazar>Hazar/Xəzər/헝스Hésà/궤스Kēsà>qas-,qaz-}에서 찾아볼 수 있다.

투르크 족이 아닌 아랍인은 이 바다 호수를 Bahr al-Qazwin (,Sea of Qazvin)으로 부르고 있는데, ‘Qazvin’은 ‘Qaz+vin’으로 나눌 수 있고, Qaz는 qas- (, "tyrannize, oppress, terrorize")에서 유래된 단어로 보이고, 이는 궤스 문화 시절의 이름이다.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 시대에 이 바다호수의 남동 지역을 Hyrcania 또는 Verkâna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날 이란의 Gilan, Mazandaran and Golestan 주의 지역과 투르크메니스탄 일부 지역이다. 고대 페르시아 인들은 그들의 통치관할 구역이었던 Hyrcania 또는 Verkâna의 이름을 따서 카스피 해를 Hyrcanian Ocean이라고 불렀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고대 그리스 인 역시 "Hyrcanian Sea"라고 불렀다.

Hyrcania는 늑대의 땅("Wolf-land")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Hyrca’는 후기구석기 시대 ‘헝궤’에서 유래된 말로, 이 지역에 ‘헝궤’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역은 ‘헝궤 산’(엘브루스/엘보르즈 산맥) 아래에 있으니, Hyrca는 헝궤에서 유래된 이름이고, 이 지역의 Gilan과 Golestan 주의 이름과 고대 Hyrca 지역의 주도(州都)였던 도시 Sari (Zadracarta)는 ‘헝궤>홀(Hyrca), 킬(Gilan), 솔(Sari)’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그리고 Hyrcania 지역을 다리우스 대왕의 Behistun 비문과 다른 고대 페르시아 기록에 Verkâna이라고 하였는데, 고대 이란어 Verkā는 이리/늑대("wolf")를 의미하고, 이는 불 문화 시절의 이름이다.

In Old Norse, vargr is a term for "wolf" (ulfr). The Proto-Germanic *wargaz is related to Sanskrit vṛka, proto-Iranian *verk "wolf", Avestan vehrka, Mazandarani varg, Zazaki verg, Old Persian varka-, Persian gorg etc

②Ural 강

강의 이름은 분명 신의 이름과 관련이 있을 것인데, 이미 Ural 산맥의 이름을 살펴보면 서, 하늘에 떠 있는 비구름(*Ūraq "water",*Ūram "water")을 소(*Ūruz, "aurochs", "wild ox")로 간주하였던 것을 보았다. 헝가리 어 **ural**(지배,dominate)을 참고하면, (비구름덩어리인) 하늘의 지배자 천우(天牛)가 지상으로 내려와 있는 곳이 Ural 강이다. 우랄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유럽의 세 번 째로 긴 강을 러시아 인은 우랄(Ural[u'raɫ])강으로, 그들보다 먼저 살아온 Bashkir 인과 Kazakh 인은 Jayıq/Zhayyq([ʒɑjəq])강으로 부르는데, 이 강은 1775년 이전에 Yaik (Russian: Яик Âik) 강으로 알려져 있었다. 인류이동로를 고려하면 강의 예전 이름 Yaik와 Jayıq/Zhayyq는 'ᄃᆞᆯ>ᄃᆞᆯ,ᄃᆞᆯ,ᄃᆞᆯ>ᄃᆞᆯ(gök)>ᄃᆞᆯ(gyag,Jayıq, Zhayyq)>ᄃᆞᆯ("yak",Yaik, ochs, ox)'의 음변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이 강을 아랍 어로는 Jihôn 또는 Jayhoun이라 하는데, 이는 히브리 이름 Yôḥanan("Graced by Yahweh")에서 유래된 영어 이름 John과 관련이 있을 듯 하고, John의 애칭이 Jack인데, 이것은 Yaik 강의 다른 이름 Jayıq, Zhayyq와 관련 있어 보인다. 이 강물을 따라 티베트 고원의 소 "yak"와 함께 카스피 해와 아랄 해로 이동해왔다가, 북쪽 우랄 산맥 지역으로 북상한 사람들의 흔적이 강의 이름 Yaik와 Jayıq, Zhayyq에 남아 있다.

③볼가 강

동유럽 평원 또는 러시아 평원으로 불리는 지역은 북극연안의 백해와 Barents 해, 우랄 산맥, 우랄 강, 카스피 해, 카프카스 산맥과 흑해, 발트 해, 폴란드의 Carpathian 산맥과 다른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 넓은 평원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은 Valday Hills(346.9 m)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중간 중간 많은 지류의 물을 받아들여, 러시아 평원의 대부분을 적시고 카스피 해로 들어간다.

유럽에서 가장 크고 긴 볼가 강은 크게 상류(Valday Hills에서 Oka 강이 만나는 곳), 중류(Oka 강 합수지점~볼가 강 본류와 Kama 강이 만나는 곳), 하류(Kama 강 합수지점~카스피 해)로 구분된다. 카스피 해 최대 유입수인 볼가 강의 서쪽 최대 지류는

Oka 강이고, 동쪽 최대 지류는 우랄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Kama 강과 Belaya 강이다. Belaya 강과 Ural 강의 발원지는 매우 근접하다. Volga 강은 시대와 종족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강의 이름을 통하여 이 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문화와 역사의 전개 과정을 알 수 있다. 검색창:Volga river

(a)Atıl 강

캅카스 반도에서 볼가 강 유역에 이르는 지역에는 투르크 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조상에 해당하는 Haplogroup C3의 사람들이 후기구석기시대 유라시아의 동남해안을 따라 캅카스 반도까지 이동한 후, 이곳에서 초원지대를 따라 볼가 강 지역으로 이동하였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ᄃᆞᆯ(İdel)이 남아 있다.

Haplogroup C3의 투르크 계통 사람들은 볼가 강을 일찍이 Itil 또는 Atıl("big river")로 불렀으며, 현대 투르크 어를 사용하는 Tatar에서는 İdel(Идел), Chuvash에서는 Atăł (Atăl), Bashkir에서는 Idhel, Kazakh에서는 Edil, 그리고 Turkish에서는 İdil로 부르고 있다. 투르크 계열 사람들은 Itıl(,Atıl) 강의 수원지를 Kama 강의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여 Kama 강을 Aq Itıl("White Itıl"), Belaya 강을 Kara Itıl("Black Itıl")로 부른다.

그리고 Belaya (Russian: Бѣлая; Bashkir: Ағизел; Tatar Cyrillic: Агый дел, Latin: Ağidel [ˌaɣiˈðel]) 강 유역은 Bashkir 족의 주요 생활지인데, 강의 이름 Belaya는 ‘백(白,white)’으로 ‘블/븍’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이는 붉 문화시대 상황이 반영된 것이고, 그 이전의 이름은 Ağidel[ˌaɣiˈðel]이다. Ağidel에서 -ğ-는 나중에 발음의 명확성을 위해 첨가된 것이고 기본형은 Aidel인데, 이는 Itil(,Atil)로 발음 표기되었다. Itil(,Atil) 강과 같은 발음의 강을 중앙시베리아에서 찾아보면, 몽골 북서 지역의 the Khövsgöl and Zavkhan aimags을 흐르는 Ider 강 (,"youthful river")이 있다. 이 강은 Selenge 강의 지류들 중의 하나인 Delgermörön 강과 합류한다. 몽골어 Ider은 ‘젊다(,"young, youthful")’는 뜻이다. 그리고 강의 이름은 아니지만 캄차카 반도의 원주민 캄차달(Kamchadals) 족은 자신들을 Itelmens으로 자칭한다.

보통 강과 왕·왕도의 이름은 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들이 부르는 강의 이름 ᄇᆞᆯ(Idel, Itil 또는 Atil)과 관계있는 것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유다 왕 여호람의 왕비가 되었다가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아달리야(Athalia 841경-835경 BC, 열왕기하 11:3; 역대하22:12)가 있다. 그녀의 이름 Athaliah (/æθəˈlaɪ.ə/; Hebrew: ˈĀtalyâ ; "God is exalted"; Greek: Ἀθολία; Latin: Athalia)는 히브리어로 ‘신은 위대하다’로 번역되어있지만, 원래는 여신 Ida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그런 점에서 Athaliah는 동정녀(,"virgins")를 지칭하는 아랍어 "aḏāra(Adara, Adhara)"와 관계있고, 이는 몽골어 Ider(,"young, youthful")와 통한다.

이들의 원래 역할은 신성한 호수와 강의 물, 그곳의 신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Ida는 물의 사용권을 장악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신관지배층(Idal, Idel, aḏāra)을 칭하는 말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왕의 이름으로도 사용된 것이다. 서아프리카 요루바 족의 장검 Ida는 바로 이러한 왕 또는 왕족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힘의 상징이다.

이 외에‘ᄇᆞᆯ’로 불리는 사람은, 유럽을 흔들었던 훈족의 왕 아틸라(Attila, 재위 434-453), 프랑크 왕국 초기 지도자 아달베로(Adalbero,?-491) 또는 아달베르토(Adalberto), 신라의 제8대 임금이었던 아달라니사금(阿達羅泥師今, 재위 154-184) 등이 있다. “경주군 남쪽 15리 배일산(拜日山)의 세 왕릉 중 맨 위의 왕릉이 아달라 이사금의 능이고 가운데는 신덕왕릉, 맨 앞은 경명왕(景明王)?-924)의 능이라 한다 《위키백과:아달라 이사금》”. ‘배일(拜日)’을 통해 이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동쪽 하늘의 태양의 광명 Itä(,"East")을 숭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Itä(,"East")와 관련된 왕명이 ‘아달라’이고, 이를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 ‘경명(景明)’이다. 신덕왕(神德王, 재위 912-917)의 이름은 경휘(景暉, 景徽)이니, 이는 ‘경명’과 같은 뜻이다. 이들은 모두 박씨(朴氏)로, Itä(,"East")의 붉을 성씨로 삼은 것이다.

(b)kama 강

타타르 사람은 kama 강을 Чулман(Latin: Çulman 슬몬)으로, 강의 중류 지역에서 Vyatka 강 입구에 걸쳐 퍼져 살고 있는 Chud Otyatskaya (чудь отяцкая), Otyaks, or

Votyaks (most known name), and in Tatar as Ar. 작은 Kam으로, 러시아 사람은 Kama로 부른다.

Kama 강은 콧 신이 강림해 있는 곳이고, 이 말은 ‘헝>흙(Proto-Germanic form *Hemina-), 콧, 습’이 원(原)어원이다. 현재 이 강의 바로 위 지역에 코미("Komi") 족이 살고 있는 코미 공화국이 있다. "Komi"의 이름은 큰 강을 의미하는 "kam" 또는 친족("kinfolk")을 의미하는 "kum"에서 유래하였다고 본다.

이는 신의 이름 콧(하늘 heaven의 어원 kem-, kam-, 일본어 神 Kami, 아이누어 Kamui, 한국문화어:곰(해모解慕, 개마蓋馬, 건마健馬, 금마金馬, 검儉, 금錦, 금今, 흑黑, 웅熊), 인도유럽어 *gʰm-on "man" (cf. Gothic guma, Latin homo), guma(human의 고어, "earthly being" (Old Latin hemō, a cognate to Old English guma "man", from PIE dhǵʰemon-, meaning "earth" or "ground"))에서 유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좋다.

아마도 한 때는 불가 강 전체의 이름이기도 하였을 강의 이름 ‘콧(Kama)’는 투르크 계열의 사람들이 부르는 ‘Itil(,Atil)’과 선명하게 다르다. 이는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르크 계열의 사람들이 트르/tur(소, 염소) 문화인이라면, 콧(Komi, Kama) 계열의 사람들은 한국 웅진(熊津)의 옛 이름 ‘고마 나루’에서 볼 수 있듯이 곰(熊)문화인이다. 그런 점에서 Kama 강의 한국식 이름은 ‘헝口>콧>곰(熊川)’에서 유래된 웅천(熊川)이다. Kama 강이 흐르는 페름(Perm) 주의 원주민 Komi 인의 이름의 유래는 이것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곰(熊)’이라는 단어 자체는 15,000년 전의 원(原)한국어에서 유래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원(原)인도유럽어 *h₂ ʳtkos(熊)과 같이 ‘헝르’로 불리었다.

15,000년 전 고온이었을 때 ‘콧(rice)와 개’문화인이 한반도 남부 일대에서 시원한 곳을 찾아 Kamchaka 반도 일대로 이주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아메리카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로 이동하고, 일부는 북극 해안을 따라 시원한 서북쪽으로 이동하여 Komsa 산맥과 우랄 산맥 사이의 Kola 반도와 Kanin 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도달하였었다. 그리고 약 11,000년 전의 대홍수를 겪고 나서 기온이 하강하였을 때, Komsa 문화인을 포함한 북극권의 콧 문화인은 약간 저위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Kama 강 일대에 정착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주하였던 사람들이 핀란드 지역과 코미 공화국 일대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이곳의 언어에는 원(原)한국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코미 어는 교착어이고 어순은 SOV이며, 다른 우랄 어와 같이 단어에 성의 구별이 없다. 동사는 7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17개의 격변화를 한다. 그리고 부정적 표현은 한국어와 같이 조동사를 사용한다.

이들의 언어는 Komi, Komi-Permyak, Komi-Zyryan (Komi, Komi-Zyrian, Zyrian), Komi-Yodzyak(Yodzyak,Komi-Jazva), Udmurt(Votyak)으로 세분되는데, 일부 페름 어에는 우랄어족에는 없는 유성자음과 무성자음의 대립(무성음 p와 유성음 b의 대립)이 있어, Mordvin 어와 함께 쉽게 핀-우랄 어파에 소속되기 어렵다.

이것은 Komi 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일반적인 핀-우랄 어파 계통의 사람들과는 문화적 배경이 다르거나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미 어의 이러한 독특한 언어 현상은 아마도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 발흥한 15,000년 전 원(原)한국어 ‘콧(rice)와 개’ 문화의 전파와 관계있을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 코미(Komi) 공화국, Kama 강, 이 강이 흐르는 Perm 주의 원주민 Komi

인의 문화적 혈통적 뿌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의 기층 밑바닥에는 7만 년 전부터 이어온 곱(h₂ ʃtkos) 문화가 깔려있고, 그 위에 ‘ᄃᆞᆫ>ᄃᆞᆫ’문화가 얹혀 하나로 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인데, 그 다음에 15,000년 전 동쪽에서 곱 문화인이 이주하여 ㅋᄃ (Kama,Komi) 문화를 전하였고, 그 다음에 캄차카 지방의 바로 아래 (만주)지역의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남긴 것이 Kama강의 다른 이름 Čulman(술몬)일 것이다. ‘술몬’ 강은 만주어 살만(薩滿[sā][mǎn], Shaman)과 관련 있는데, 술만 강은 ‘신인(神人)의 강’ ‘신성한 하느님의 강’이라는 의미다.

(c)Oka 강

볼가 강 서쪽 상류의 최대 지류로 Oka 강이 흐르고 있고, Oka 강의 지류로 Moskva 강이 흐른다. 강의 이름 Oka에 대해서 Max Vasmer는 물이나 강을 뜻하는 고트 어 aha, 고대고지대독일어 aha, 라틴 어 aqua와 연관 짓는데, 이 경우 Oka는 ‘ᄃ:존칭접두사+ ᄃᆞᆫ’의 ‘ᄃᆞᆫ>ᄃᆞᆫ(aha), ᄃᆞᆫ(aqua), ᄃᆞᆫ’또는 ‘ᄃᆞᆫ>ᄃᆞᆫ(海), ㅋᆞᆫ(구溝[gōu], 결漈[jié], 기漪[qí]), ᄃᆞᆫ(水)’로 볼 수 있다. 이를 따르면 Oka(=O+ka)의 Ka는 15,000년 전 노스트라틱 어가 형성 되었을 때의 강물을 뜻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외에 강/부족/성씨 등은 신의 이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Oka’는 ‘ᄃᆞᆫ>ᄃᆞᆫ’에서 유래된 것일 수 있다.

(d)Nero 호, Nara 강

Nero 호수는 중앙 러시아에 있는 전(前)빙하기의 몇 안 되는 호수 중의 하나이고, 50만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고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Rostov 남쪽 Nero 호의 독의 중심지였던 Sarskoe Gorodishche에 사람이 처음 정착한 것은 6000년 전이고, Nero 호의 이름은 Neva 강과 Onega(=O+ ne+ ga<O+ ne+ ja<O+ ne+ zh) 호와 Nevajärvi 호(, 현재 Ladoga 호)의 이름과 관련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 호수를 Nero (습지 "silty", "marshland") 또는 Kaovo (갈매기가 사는 곳)로 부른다.

호수의 이름을 볼 때 이 지역에는 ㅋ 문화인(Kaovo=Kao+ vo<ㅋᄃᆞᆫ+ ㅂᄃᆞᆫ+ ㅂ)이 있었고, 대홍수 이후 기온의 상승에 따라 이 지역의 ㅋ 문화족은 예전의 기후 조건을 찾아 Kama 강을 타고 우랄 산맥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Kazim 강 유역으로 이주한 듯하다. 그리고 6,000년 전 지구의 기온이 최절정으로 올랐을 때 ㄴ 문화족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거나 기존의 사람이 ㄴ 문화를 수용하였을 것이고, 그들이 이 호수의 이름을 Nero 라고 불렀을 것이다.

호수의 이름 Nero (습지 "silty", "marshland")는 발트 해 지역의 말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영하다, 그물을 짜다(,"to dive, swim downstream" as well as "to net, crochet")’란 의미의 리투아니아 어 nerti와 동종어이니, 리투아니아 지역에서 볼가강 상류 지역으로 강을 따라 이동한 사람들이 정착하였던 곳이, Nero호와 Oka강의 지류 Nara 강 일대이다.

(e)Volga 강

Volga 강의 이름 'Volga'는 원(原)슬라브 어 *vòlga(습(濕) "wetness, moisture")에서 유래하였다하고, 이것에서 파생된 말은 슬라브 제어(諸語)에 남아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있는 것은 Veles인데, 현대 러시아 어 Volos로도 알려져 있다. Veles는 '지(earth)/수(waters)/지하세계'의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슬라브 족의 주요한 신인데, '용(龍)/소(cattle)/마술/음악가들/부(富)/계략'과 관계있다. 그는 천둥과 번개의 최고신 Perun과 적대 관계에 있다. 이 문화는 인도의 베다에 나오는 천둥 번개의 신 인드라의 적 Vala, 발트 신화 천둥 번개의 신 Perkūnas의 적 Vels 또는 Velinas, 북유럽(Nordic) 신 Volsi ("priapus")로 남아 있다.

Ural 강을 설명하면서 하늘의 비구름을 천우(天牛)로 보았던 것은 살펴보았는데, 천우야크의 검은 털은 먹구름이 뭉쳐있는 것이고, 벼락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는 것은 야크의 털 가닥 가닥을 타고 비가 흘러내리는 것이다. 소를 뜻하는 영어 bull과 러시아어 Vol, 하늘의 불(벼락)과 발([fà,fā]髮)을 뜻하는 "Volos"의 어원이 '불'로 같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강의 이름 Volga는 천우(天牛) "Vol + ga"가 강림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보통 강은 신과 관련 있는데, 모스크바 강은 웅천(熊川)이라는 뜻이니, 이 강변에 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Volga"는 소의 신을 뜻하는 말이니, 불가 강 유역에 소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러시아어로 늑대를 "volk"라 하는데, 이는 "Volga"와 음이 거의 같으니, 불가 강에는 늑대 문화도 있었다는 것인데, 늑대 문화시절 불가 강의 이름은 Rav이다.

그리고 Mari 족은 천우 Volga가 강림해 있는 불가 강을 고대 러시아 어에서 차용한 Volgydo("bright")로 불렀는데, Volgydo는 천신 "붉드"가 강림해 있는 강이고, 불가 강의 발원지는 Valday Hills이다. 붉 문화 시절의 강 이름은 Volgydo 이외에 보통 백강(白江)의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Belaya" 강의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많다.

우랄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불가 강의 최대 지류 Belaya 강 이외에 붉드(밝다)와 관계있는 러시아 어 Belaya는 '백(白[bái], "White")'이라는 뜻인데, 러시아의 Murmansk 주 Imandra 호(湖)의 지류 Belaya 강, Bashkortostan 공화국 kama 강의 지류 Belaya 강, Adygea 공화국의 Kuban 강의 지류 Belaya 강, Kamchatka Krai에 있는 Penzhina 강의 지류 Belaya 강, Irkutsk 주에 있는 Angara 강의 지류 Bolshaya Belaya 강, Chukotka 자치구역의 Anadyr 강의 지류 Belaya 강 등이 있다.

(f)Moskva 강

러시아 { Vladimir 주 서부, Moscow 주 북동부, Yaroslavl 주 남부 } 사이의 골든 링(Golden Ring)으로 불리는 지역은 Zalesye("숲 너머 지역") 또는 Opolye("들판에 있는 지역")로도 불린다. 이다. 9세기에 현대 러시아인의 조상이 되는 Rus 족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곳에는 'Mari 인 · Erzya 인 · Moksha · Mordvins인 · Merya 인 · Murom 인 · Meshchera 인 · Perm 인' 들이 살고 있었는데, 12세기 이후 슬라브족 정착민들에 의해 동화되어갔다.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기온의 하강과 인구증가에 의해 불가 강 줄기를 따라 서서히 남하하였는데, 지금은 불가 강과 Kama 강이 만나는 지역을 중심으

로 모여 살고 있다. 인류언어학적으로 이들을 Volga Finns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확실치는 않다. 2009년 16차 인류언어학 대회에서 Mari 어와 Mordvin 어는 우랄 어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현재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Moskva[Moscow]) 시의 이름은 이곳을 지나는 Moskva 강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는데, Oka 강의 지류 Moskva 강은 Novgorod 시에서 볼가 강의 본류와 만나 Mari 자치공화국을 통과하여 카스피 해로 내려간다. 강의 이름에는 모스크바 시 옆 지역에서 사용되는 Mari 어 moská(곰)와 ava(어머니)의 뜻이 내포되어 있고, Mordvins 어로는 웅천(熊川"bear-river")이라고도 한다. Mari 어 moská(곰:"bear")는 이 지역 신의 이름이었을 것이고, ‘곰(moská)의 자손’을 칭하는 말이 슬로베니아 어 moški(남성형명사:"man")이다. 후기구석기 시절부터 북유라시아의 주신이었던 곰(熊)의 명칭이 ‘ᄃᆞᆫ(moská, moški)’라는 것은, 이 지역에 ‘ᄃᆞᆫ’문화가 성행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지역 일대에 살고 있는 ‘Mari 인·Erzya 인·Moksha·Mordvins 인·Merya 인·Murom 인·Meshchera 인·Perm 인’의 족명을 보면, ‘ᄃ’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Mordva"는 처음에 오직 Erzya 인만 지칭했는데, 나중에는 Moksha 인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통해, 이 지역 기존 사람들이 ᄃ 문화를 차츰차츰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골든 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ᄃᆞᆫ 문화의 흔적은 북극의 백해로 흘러드는 Onega 강의 지류인 Mosha 강, 볼가 강의 상류 Beloye 호(白湖)로 흘러드는 Megra 강과 Rybinsk 저습지 저수장으로 흘러드는 Mologa 강 등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ᄃᆞᆫ 문화가 북극해 지역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이외에 현재 동유럽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ᄃᆞᆫ 문화는 헝가리의 마자르 족(ᄃᆞᆫ>ᄃᆞᆫ>ᄃᆞᆫ>ᄃᆞᆫ>ᄃᆞᆫ)의 족명에 남아 있다. 이들은 열 부족 이상의 다양한 사람들이 ᄃᆞᆫ 문화를 중심으로 뭉쳐 마자르 족이 되었는데, 나라 이름 ‘헝가리’는 이들이 ᄃᆞᆫ 문화 이전에 ‘ᄃᆞᆫ’ 문화를 수용하였음을 알려 준다.

Mari 자치공화국 일대의 ᄃᆞᆫ 문화는 중앙아시아의 고원 지대 또는 헝가리-마자르 족의 고향으로 볼 수 있는 초원지대에서 볼가 강 중류 모스크바 강 일대의 초원지대로 전해졌거나, 그보다 약간 후기에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발달된 ᄃᆞᆫ 문화가 볼가 강을 따라 북상하면서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곳의 원주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Mari 인은 현재 Mari 자치공화국에 대부분 살고 있지만, 한때는 모스크바 강 유역에서 Kama 강 유역, 우랄 산맥 근처까지 퍼져 살았었다. 현재 Mari 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Kama 강의 지류 Vyatka 강 주변 분지 지역을 중심으로 살고 있고, Mari 인의 서부 지파로 설명되기도 하는 Merya 인 (, Merä, Mari인 자신들의 표기로는 Mäp̄ä (Märä))은 오늘날 러시아의 Golden Ring 또는 Zalesye 지구(Moscow, Yaroslavl, Kostroma, Ivanovo, and Vladimir 주)로 불리는 곳과 거의 일치하는 곳에 살았고, 이곳은 그들의 지성소가 있는 성역이었다. 6세기에 Merens으로 기록에 남겨지기도 했지만, 11세기에 Kievan Rus에 의해 그들의 땅이 점령되자 동슬라브 족으로 서서히 동화되어갔다. Mari는 사람("man")이라는 뜻으로 이들 자신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러시아 인이나 다른 유럽인은 그들을

Cheremis, Tatar 측은 Çirmeş로 부른다.

Meshchera (ᄃᆞᆫ+ᄃᆞᆫ) 인은 Oka강과 Klyazma 강 사이의 습지와 호수, 숲에 살았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도 Meshchera Lowlands로 불린다. 5-8세기의 청동 장식물에는 Finno-Ugric 의 특징이 있는 자신의 문화를 이룬 것이 보인다. 언어에 Mordvin 어와 Perm 어의 요소도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과의 문화 인류적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Mordvins (Mordva, Mordvinians) 인은 종족의 1/3 정도가 볼가 강 분지의 Mordovia 공화국에 살고 있는데, Erzya and Moksha, Qaratay, Teryukhan 그리고 Tengushev (or Shoksha) 등 여러 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 Erzya 인과 Moksha 인이 대표적 구성원이다. "Mordva"는 인도-이란어 *mertā 또는 *martiya("person, man"), 페르시아-스키타이 어 mard("man")와 관계있는데, 지금도 Mordvin 말 "mirde"는 남편이나 배우자를 의미한다. 이 말은 사람("man")을 뜻하는 "Udmurt"인의 말 murt, Komi 인의 말 mort, Mari 인의 말 marij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단어들의 공통 어간 ‘물(mar,mir, mor, mur)-:man’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Mari)의 뜻은 인도-아리안 어 어원 *mar- (< PIE *mer-) "man"과 아랍 어 어원 -m-r("command")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군사지휘자이면서 행정관의 역할을 하였던 통치자를 ᄃᆞᆫ (*mar-, -m-r)로 불렀다. 이를 통해 페르시아(,이란) 지역의 ᄃᆞᆫ 문화가 러시아 골든 링 지역으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란 지역에 있었던 메디나 왕조 이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명 중에 ‘메흐르다드 (Mehrddad, 태양이 빛은 자), 메흐르자드 (Mahrzad, 태양의 아들)’이 있는데, 이를 참고하면 ‘물(mar,mir, mor,mur)-:man’은 태양을 뜻하면서, 그것을 의인화하여 사람(man)을 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Mordva는 태양의 후예라는 뜻이다.

Moksha (Moksha: Mokshet/Mokshet) 인은 Oka강의 지류인 Moksha 강변에서 선사 시대부터 살아온 것으로 믿어지는데, 볼가 강 분지 Mordovia 자치공화국과 주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러시아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인류학적으로 북노르웨이, 북 핀란드와 Kola 반도에 살고 있는 Lapps(,Sami) 인의 특징이 많이 보인다. 이는 기온 하강에 따라 북극해 연안권의 사람들이 많이 남하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보다 더 발달한 남쪽의 ᄃᆞᆫ 문화를 수용하여, 부족의 이름도 ᄃᆞᆫ 계열음으로 바꾼 것이다. "Moksha"는 인도-이란 어 mōkṣa(liberation, salvation)에서 유래하였고, 산스크리트 어 moksha("releasing, causing to flow")와 동종어로 생각되는데, ᄃᆞᆫ(Mo+k+sha)가 어원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모스크바 강 주변에는 북극해에 가까운 지역에 살던 사람(ᄃᆞᆫ 문화인, ᄃᆞᆫ 문화인)들이 기온 하강에 따라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볼가 강 주변으로 내려와 ᄃᆞᆫ 문화인이 되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새로운 ᄃᆞᆫ 시대의 신이 강림해 있는 강을 ᄃᆞᆫ ᄃᆞᆫ(Moskava)로 불렀는데, 그것이 현재 모스크바 일대를 흐르는 Moskva 강의 이름의 유래이다.

그리고 북극해로 흐르는 Mosha강, Megra 강, Mologa 강의 이름은 이 지역에도 ᄃᆞᆫ

문화가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들 강가에 살았던 Mari 인, Moksha, Mordvins인, Merya 인, Murom 인, Meshchera 인은 ㄹ 문화시대의 ㄹ/ㄹ 문화를 수용하였고, 그것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삼아 살아왔던 것이다. 이들에게 남아 있는 ㄹ 문화에 관한 것은 ‘ㄹ’ 항목에서 언급하였다.

(9) Rav 강

볼가 강 중류 지역의 현대 Mordvins(Mordva, Mordvinians) 어로 볼가 강을 Rav로 부르는데, 이는 ㄹ 문화 시대의 강 이름이다. Mordvins 인은 Erzya(을+ ㄷ), Moksha(ㄹ 문화), Qaratay(ㄹ+ ㄷ), Teryukhan(ㄷ+ ㄷ), Tengushev(ㄷ+ ㄷ, 통구스), Shoksha(스스) 등의 여러 문화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을 문화적으로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 볼가 강의 이름 **Rav**이다. Rav는 강과 신의 이름인데, 아랍 어 rabb("lord"(generally used when talking about God, but also about temporal lords)), 히브리 어 rav(['rāv])(,"great one")과 관계있다. 또한 선사시대부터 내려온 Moksha 인이 북유럽 Lapps 인과 인류학적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통해, 동유럽의 Rav는 북유럽의 Lapps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북유럽의 ㄹ 문화와 동유럽의 ㄹ 문화는 어떻게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북유럽 끝 지역에 있는 유럽 최대의 호수 Ladoga 호의 이름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Ladoga 호의 러시아 어 이름은 Ladozhskoye ozero, 핀란드 어 이름은 Laatokka이다. 그 이전 이 호수의 이름은 Nevajärvi 였는데, 이는 ㄴ 문화인이 남긴 것이다. Ladozhskoye(=Lado+ zh+ skoye)와 Laatokka(=Laato+ k+ ka)를 통해, ㄹ 문화 시대에 북유럽에는 ㄹ 문화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ㄹ 문화와 관계있는 것은 고대 북유럽어 (Old Norse) ruð ("정화(淨化) clearing")와 네덜란드(Dutch) 남성 이름 Ruud("famous wolf")'이다. Rudd를 통해 Lado는 늑대를 뜻하고, ruð를 통해 Rudd는 늑대 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신인(神人)이었음을 알 수 있다.

ㄹ 문화에서 파생된 늑대를 칭하는 말은 ㄹ(ㄹ)(Lykeion), ㄹ(ㄹ)(Lado, Rudd), ㄹ(ㄹ)(Lupus), ㄹ(ㄹ)(Rus), ㄹ(ㄹ)(>ㄹ>ㄹ(狼) 등이 있다. Rav는 Lapps/Lupus와 가장 밀접한데, 북유럽 Lapps 족 지역에서 볼가 강을 타고 동유럽 러시아 지역으로 진출한 이들의 조상들이 남긴 이름이 Rav일 것이고, 이들은 rabb("Lord, God")으로 부르는 신을 믿었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대 러시아인의 먼 조상들은 Ladozhskoye ozero 호 주변의 늑대 문화인이었다. 이들도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볼가 강 중류 지역으로 진출하여 볼가 강을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불렀을 것인데, 강을 뜻하는 러시아 어 raka(ㄹ 문화>ㄹ)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ㄹ/ㄹ’에는 늑대라는 뜻이 있기에, Russia/Rus(라틴 어 "Ruthenia")는 ‘늑대신앙인의 땅’ 이런 의미가 될 것이다.

강의 이름 Rav와 한자어 ‘랑(浪)/류(流)/랑(狼)’은 유라시아 초원지대에 ㄹ 문화가 성행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문화를 중국에 전한 이들이 서융(西戎)으로 기록된 융(戎[róng]) 족이다. [róng]은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랑(狼[láng]) 문화족을 지칭하는 말이다.

(h)Sari-su

킵차크 한국 이후 이곳에 정착하게 된 몽골인 들은 볼가 강을 Ijil mörön("adaptation river")으로 부르고, 다른 아시아 계통 사람들은 투르크 어에서 유래한 Sari-su("yellow water")로 부르고 있다. 볼가 강의 지류 중 Sari-su와 가장 음이 근접한 Sura(Russian: Cy pá 스크, Chuvash: Căp 술) 강은 Oka 강과 함께 볼가 강의 큰 지류인데, Sura 강과 볼가 강 본류가 만나는 주변에 Chuvashia 자치공화국이 있고, 주민의 약 70%는 추바슈 족이다. 이들의 투르크 계 조상들은 중앙 시베리아 천산과 알타이 산 사이의 Irtysh 분지에서 살다가 적어도 BC 3천 년 대 말에 이동해온 것으로 믿어진다.

추바슈 인이 부르는 강의 이름 술(Căp)에 물을 뜻하는 터키어 su를 더하면, ‘술수(Căp-su)’가 되고, 이는 곧 Sari-Su의 다른 발음이다. 이를 보면 투르크 계통의 사람들은 술수(Sura강)를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그 강이 볼가 강의 본류와 만나서 카스피 해로 흘러가는 강을 Sari-su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추바슈 인들에게 Sura 강은 곧 Sari-su(볼가 강), ‘술수’이다. 술을 Sari 또는 Sura로 달리 발음하였을 뿐이고, 그들에게는 ‘술수’가 이 지역 최대의 강, 볼가 강의 이름이다.

볼가 강의 다른 이름 술수(Sar-su)를 터키 어로 풀어보자면, sari는 노랑(黃), su는 물(水)이다. 그리고 한자어 수(水)는 터키 어 su, 한국어 내(川)는 터키 어 nehir(강)와 관계있다. ‘sari-su’의 의미를 그대로 한자어로 번역하면 ‘황수(黃水)’ 또는 황토물이 흐르는 ‘토하(土河)’가 되는데, 실제의 ‘황수(潢水)’는 현재 중국의 요령성 북부 내몽골 동부를 흐르는 강으로 몽골 어로는 ‘시라무렌(Šira Mören, Shar mörön, Xar Moron "Yellow River")’으로 부른다.

Mören의 음이 한국어 ‘물’('水')과 같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몽골 어 시라무렌은 Sari-su이니, 술수(Xar su, Šira su, Shar su)로 표기할 수 있다. 이 일대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정착하였을 경우, 큰 강을 술수로 불렀을 것이고, 그 중의 가장 뚜렷한 예가 볼가 강을 sari-su로 부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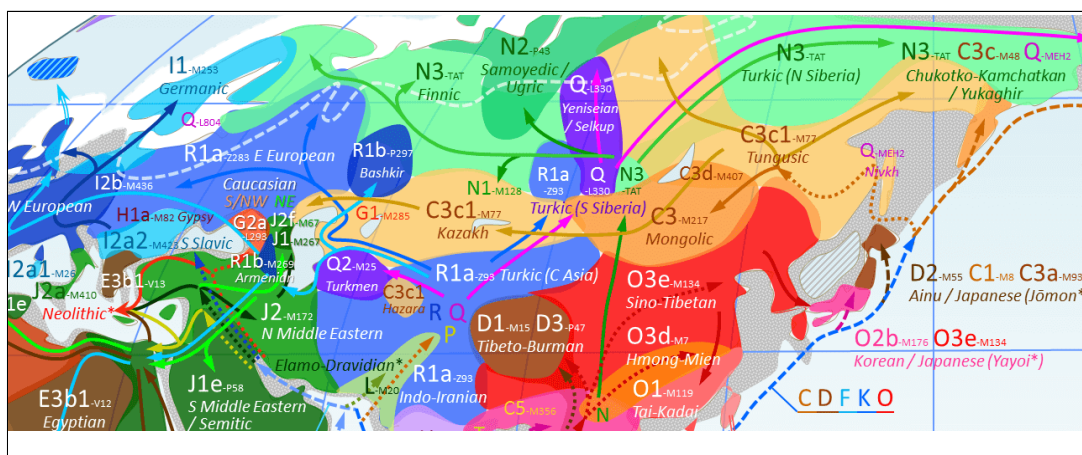


도표20. (HaplogroupC3c 집단의 이동과 술수(Sari-su) 강) 《wikipedia:Haplogroup 》

술수의 이름으로 불리어진 강으로 ‘러시아의 Sari-su/내몽골의 시라무렌/고구려의 술

수(薩水)’가 있고,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한 초기 도읍지 허투알라(Hetuala, 현재 興京, 만주어 赫图阿拉 (或赫图阿喇、黑禿阿喇、黑图阿拉, "橫崗"이라는 뜻)와 무순의 중간에 있는 사르후(薩爾滸[sā][ěr][xǔ], Sarhu)도 ‘술수’이다([xǔ]는 shu로 읽어야 원음에 가깝다).

살수(,사르후)라는 지명이 있는 곳을 흐르는 큰 강인 혼하(渾河[hún][hé], "the muddy river")의 옛 이름은 심수(瀋水[shěn][shuǐ])이다. ‘심수’([shěn][shuǐ]<ᠰᠢᠨᠰᠤᠰᠤ)의 심(瀋)은 ‘즙:심’으로 혼독되니, 이는 시라무렌(Šira Mören)을 요락수(饒樂水)로 부르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 즉 심수는 곧 술수(sari-su)이다. 살수(,사르후)라는 지명은 이 강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혼하([hún][hé])는 누런 진흙물이 흐르는 ‘황토강(, "muddy river")’으로 황하(黃河[huáng][hé])와 음훈이 같다. 이를 보면 황하 역시 술수로 불리었던 적이 있었을 듯하다.

그리고 송화(松花)가루의 노란 (금)색을 터키어로 sari라 하니, 술수(Sari-su, "yellow water")의 만주어식 훈역(訓譯)이 바로 ‘송화강(松花江)’이고, 이 강을 중심으로 금(金) 제국을 세운 이들이 여진족이다. 결론적으로 볼가 강을 술수 Sari-su로 부르는 사람들의 조상은 송화강 유역과 내몽골 시라무렌 강 유역에 살았던 Haplogroup C3 계열의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계되는 사실은 다음 인용을 통해 그 내력을 짐작할 수 있다.

“튀르크어군은 터키에서 중앙아시아, 중국 서부에 걸쳐 분포해 있다. 터키어를 포함한 투르크멘 제어(Turkmen), 야쿠트 어(Yakut), 투바 하카스 어(Tuva-Khaskas), 킵차크 제어(Kypchak), 차가타이 제어(Chagatai)의 5개 언어에 추바슈 어(Chuvash)를 더하여 6개 언어 또는 어군이 있다.” “람스테트에 의하면 알타이 제어(諸語)의 조상인 알타이 공통조어(共通祖語)는 중국 북부의 싱안링산맥(興安嶺山脈) 근처에서 사용되었다.

알타이 공통조어를 사용하는 종족으로는 이 산맥의 북동쪽 통구스인, 남동쪽에 한국인, 북서쪽에 몽골인, 남서쪽에 투르크인이 살았다....람스테트의 알타이어족설은 N. 포페에 이르러 다듬어졌다. 포페는 알타이 공통조어에서 원시한국어가 맨 먼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원시 튀르크어가 나뉘고 원시 몽골어와 원시 통구스어가 맨 나중에 갈라졌다고 보았다. 《브리태니커:알타이어족설》

현재 우랄 알타이 어라는 분류 자체도 부정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싱안링(興安嶺) 산맥 남서쪽에 볼가 강을 Sari-su로 부르는 투르크 인의 조상들이 살았다는 것과 볼가 강을 술(Căp)로 부르는 추바슈 인의 조상이 알타이 산록 Irtysh 분지에 살다가 볼가 강 지역으로 이주해갔다는 것은, 시라무렌(황수(潢水))과 ‘sari-su’(볼가 강)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시라무렌-Irtysh 분지-볼가 강 유역’의 연결선은 곧 Haplogroup C3·C3c·C3d 집단의 이동로이다. 이 지역들을 투르크 인들이 점거하고 살았을 때 술(,스르) 문화가 꽃피었고, 그 문화를 접한 사람들은 어디서든 황토물이 흐르는 큰 강을 보고 술수(sari-su)로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시라무렌(Šira Mören)은 요락수(饒樂水)、토호진수(吐護真水) 등의 별칭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러시아의 대초원을 흘러내리는 ‘sari-su’(볼가 강)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④테레크 강

테레크 강(Terek River)은 조지아(,그루지아) 북부의 카스베크 산에서 발원하여 카스피 해로 흘러 들어간다. 강의 이름 ‘툽(Terek)’에는 투르크 계통의 사람들이 ‘뚝’ 문화를 일으켜 전파하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

2)북유럽

북유럽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언어문화 보존성이 높은 편이다. 이곳의 신화와 지명, 인명에는 인류문화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 제2장. 언어인류학적 문화사의 타당성을 점검해볼 수 있다.

①기층문화의 형성과정

35,000년 전은 야생소를 뒤따라 이동하던 사람들이 근동에서 여러 지역으로 길을 나누어 헤어진 중요한 시기이다. 당시 발칸 반도를 거쳐 독일 지역으로 간 후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까지 간 사람이 있었고, 우랄 산맥을 타고 북극해 지역으로 간 사람이 있었고, 중앙아시아-몽골 지역으로 간 사람이 있었는데,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의 스웨덴 어와 노르웨이 어의 초기 형태는 이 시기 즈음에 형성되었다.

스웨덴 어에는 무성치조후연구개마찰음(Sj-sound)로 불리는 독특한 발음이 있는데, 유럽 어에서는 독일의 쾰른 인근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이 발음의 원(原)출처는 아프리카 남부 보츠와나의 !Xóǃ 어에 보이는 ‘쫘’ 하고 내는 clicks 자음이다. 이를 통해 현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아프리카 남부 Bushmen의 일파가 독일 쾰른을 거쳐 스웨덴 지역으로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의 이동노선은 도표2. (mtDNA에 의거한 인류이동로)에 잘 나타나 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북부 지역이 포함되는 북동 유럽지역에는 Haplogroup N3 Finnic 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들의 먼 조상은 35,000년 전을 전후한 시기에 동남아시아 또는 중국 남부 지역에서 출현한 Haplogroup NO이고, 이들 중의 일부가 사르탄 빙기가 시작되고 나서 다시 기온이 상승하였던 20,000-25,000년 전의 기간에 중국 서부 산맥을 타고 바이칼 호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였다가, 14,750년 전 고온 건조하였던 시기에 북동 유럽북극해 연안 지역과 동북 시베리아 북극해 연안 지역을 향하여 이동하였다. 이들의 출현과 이동 시기를 19,400±48,00년 전으로 잡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검색창:Haplogroup

검색창:Haplogroup N

검색창:Haplogroup NO

그리고 동북 시베리아 지역으로 이주하였던 Haplogroup N3 중 일부는 15,000년 전 전후의 고온기에 한반도 남부 지역의 ‘개와 농경문화’ 기술을 가지고 동북 시베리아 캄차카 반도 지역으로 이주하였던 사람들과 함께 서쪽으로 이동하여 노르웨이 북부와 핀란드 주변 지역에 정착하였는데, 이들이 남긴 문화가 노르웨이의 북부 Komsa 산을 중심으로 한 Komsa문화이다.

이러한 내력이 있기 때문에 스웨덴에는 아프리카에서 독일을 거쳐 올라온 온 문화어가 바탕에 깔려있고, 핀란드에는 우랄 산맥 지역을 통과하여 온 극동 시베리아-원

(原)한국 문화어가 바탕에 깔려 있다. 그래서 스웨덴 어는 인접국의 노르웨이 어/덴마크 어와는 의사소통이 쉽게 가능할 정도로 가깝지만 핀란드 어와는 차이가 매우 크고, 핀란드 어는 한국어와 통하는 점이 있다.

북유럽 인류의 이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유전인자 분석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스웨덴 남부 거의 전체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Haplogroup I-M170는 근동, 코카서스, 북동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시베리아에서 분포하고 있는데, 25,000-30,000년 전에 유럽에서 출현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Haplogroup I1b(또는 Haplogroup I2)는 대략 15,000-17,000년 전 남유럽에서 출현하였고, 핀란드 서부 Satakunta 주의 Pori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과 스웨덴 중앙에 있는 Västra Götaland에서는 주민의 약 50% 정도가 Haplogroup I1a 유전인자이다.

이들의 조상은 15,000년 전 이베리아 반도에서 출현하였거나, 4,000-5,000년 전에 덴마크 지역에서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보이는 '25,000년 전/15,000년 전/4,000년 전'은 당시 기온 상태가 고온의 절정에서 서서히 내려가는 시점인데, 그 이전의 기온 상승기에 여러 지역에서 더위를 피해 북유럽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부에 최소 5,000년 이상 살아온 Sami(Sámi or Saami)족의 조상에 대해서는, 증거는 빈약하지만 11000-8000 BC의 마지막 빙하기에 북극해의 해양 문화인이 현재 Kola 반도의 해안에서 Finnmark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노르웨이 해안 지역에 정착하였고, 이들이 후손이 Sami 족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다.

Sami(Sámi 또는 Saami)인의 전통적 언어는 우랄 어족의 한 지파로 분류되는데, 이는 이들의 원(原)조상들이 우랄 산맥 지역에서 이주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부 또는 북 Sami 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ami 어인데, 이것의 이름은 Davvisámi 또는 Davvisaami, Davvisámegiella, 그리고 Lappish 또는 Lapp로도 불린다. 이는 Sami 족이 드브 문화와 르브 문화를 수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과정에 자신의 정체성이 많이 흐려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Sami 인을 랍(Lap)으로 부르는 것은 경멸적인 분위기가 담긴 표현이다.

그 이후 5,000년 전 쯤 카스피 해 일대의 Haplogroup R1b 사람들이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핀란드 Pori(<-borg part (, "city or castle")이다. 이는 원래 스웨덴 어 Björneborg를 핀란드 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고, 이것의 뜻은 웅성(熊城 Bear City, Bear Castle)이고, 이것을 라틴 어 문자로 표기한 Arctopolis 또한 Bear City를 뜻한다. 이는 이 지역에 곰(bear) 신앙의 문화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현대 영어 "bear(곰)"의 고대 영어는 bera("brown")이고, 스칸디나비아 어는 björn (or bjørn)이고, 원인도유럽 어는 *h₂ řtkos이다.

아마도 핀란드 일대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곰을 *h₂ řtkos(홀+ㅍ+ㅋ)로 불렀을 것인데, 이 발음의 종족명은 스웨덴 남부 끝 해안 지역에 있었던 Heruli 족의 이름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의 조상은 25,000-30,000년 전의 Haplogroup I-M170일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의 바탕(*h₂ řtkos, Hyrcania, Heruli) 위에 BC 3000경 청동기 시대에 이주해온 곰 문화의 뽀(Borg) 문화족이 얹혀 있는데, 그들은 대체로 Buri 또는 Borr/Burr 족으로 불리고 있으며, Pori라는 지명에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아 두고 있다.

②으스 문화

북유럽 신화의 오래된 신으로는 ‘헬르/Hel’과 ‘오스/Æsir’(*áss, óss "god" (gen. āsir)*) 신이 있다. Hel 신은 후기구석기 시대 유라시아 대륙에서 성행하였던 헬르 신앙에서 비롯되었고, Æsir(*áss, óss "god"(gen. āsir)*)은 아프리카의 오스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Hel 신의 흔적은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Helsinki)의 지명에 남아 있고, 오스 신앙의 흔적은 에스토니아(Estonia)의 국명에 남아 있다. 에스토니아는 고대 라틴어 자료에 Estia or Hestia로 기록된 것도 있는데, 이는 에스토니아 주변 지역 사람들이 ‘헬스>헝스>오스’ 신을 믿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의 이름을 따서 바다의 이름도 오스로 불렸을 것인데, 게르만족 계열의 사람들은 오스 신과 관련된 명칭으로 부른다. 그래서 고대 영어로는 오스 해(海)(Ostsæ)이다. 현대 영어로는 발트 해(Baltic sea)로 부르지만, 이는 북 문화를 접한 슬라브족 계열의 사람들이 주로 부르는 이름이다.

오스는 Ost의 현대 영어 ‘east(東)’의 어원 *aus- (1) "to shine,"에서 기본 의미를 볼 수 있다. 이 신의 이름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의 광명에서 유래되었고, 오스는 광명의 신을 지칭하는 말이면서, 이것이 떠오르는 곳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였는데, 그곳을 나중에 East로 부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East’는 ‘신·신의 대리자가 머무는 곳’을 의미한다. 그리고 ‘t-d-r-s’음변화 법칙에 따라 ‘오스’는 ‘오트’의 발음으로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스웨덴어의 영향을 받은 핀란드어 Itämeri("East Sea")에서 볼 수 있다. Itä("East ")는 동(東)쪽을 뜻하는 스웨덴어다.

오스 문화인이 어느 길을 따라 북유럽으로 왔는지는 신을 뜻하는 헝가리어 Isten과 발트 해로 흘러드는 Bug 강의 고대 이름 Istula, 고대 트라키아어로 부르는 Dniester 강의 다른 이름 Ister, Danube 강의 고대 트라키아어와 그리스어 이름 Ister 등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Dacian/Thracian name was Donaris/Donaris (Τάναϊς in Greek, upper Danube) and Istros (lower Danube). 흑해에서 발트 해로 연결되는 강의 이름에 ‘Ist’가 공통으로 들어 있는데, 헝가리어 Isten(神)을 참고할 때, ‘Ist’는 흑해 연안에서 발트 해 연안 지역으로 강을 따라 전파된 것이다.

아프리카의 오스, 오트 문화인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중동을 지난 다음 발칸 반도로 이동하였고, 이곳에서 다시 강을 타고 북유럽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것이 언제였는가는 중동 지역과 남유럽과 발칸 반도에 퍼져 있는 오리냐크 문화(The Aurignacian culture (/ɔˈrɪŋˈneɪʃən/ or /ɔˈrɪnˈjeɪʃən/ 45,000–35,000년 전–37,000~27,000년 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할 때 북유럽의 오스 문화의 원뿌리는 27,000년 전 이전에 아프리카에서 이동한 사람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고, 그 이후 사르탄 빙기가 진행되면서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였다가, 14,750년 전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고온건조 해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북유럽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북유럽 2차 오스 문화시대가 전개되었다. 그 후 대홍수를 전후하여 기온이 올라가고 얼음이 녹으면서 남유럽에서 북상한 사람들이 에스토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3차 북유럽 오스 문화를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에스토니아에는 11,000–13,000년 전에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③ㄱ(,ㄱ) 문화

북유럽의 ㄱ(,ㄱ) 문화는 노르웨이의 Komsa 문화에서부터 살펴 볼 수 있다. Komsa 문화는 BC 10,000년경 노르웨이 북부 Alta, Finnmark에 있는 Komsa 산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중석기 수렵-채집 문화이다. Komsa는 랍(Lapp) 어로 "cradle"(요람, 낫)이란 뜻으로 아마도 ㄱ 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뜻하는 말로 이해된다. 이곳의 남쪽인 Jutland 반도는 역사적으로 Cimbria로 불리었는데, 이 지명 역시 아마도 ㄱ 문화의 흔적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대홍수로 인해 기온이 잠시 하강하자, 사람들이 더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하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노르웨이 Komsa 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북유럽 ㄱ(,ㄱ)/Komsa 문화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문화의 큰 흐름은 북유럽 내륙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이어가게 되었다. 지명상 이들과 관계있어 보이는 것이 폴란드·독일·덴마크·스웨덴 남부지방에서 BC 8000경에 성행하였던 Komornica([kɔmɔr'niʃsa]) 문화이다. **Komornica**는 폴란드 중앙 동부 Gmina Wieliszew 행정구역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뜻은 "입주자"이다. 'Komor'은 북유럽의 사람 이름에 많이 사용되고, nica는 "다른"이라는 뜻이다.

쿠르간 가설로 유명한 Marija Gimbutas의 연구에 따르면, 대홍수 이후에 서쪽에서 Jutland 반도와 현재의 Poland에서 동쪽으로 출발한 두 부류의 인류의 이동이 있었다.

지금은 거의 없거나 사라진 R1a7-M458 유전인자를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길을 떠났던 폴란드와 그 인근 지역은 후기구석기 시대의 마지막 문화에서 중석기 문화로 전환되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Swiderian(,Sviderian and Swederian) 문화가 있었던 곳이다. 이 문화는 Boreal(대륙성 따뜻함 2차)(9450-8150 BP) 기후가 전개되면서 7800-7600 BC에 막을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문화에 속했던 사람들은 핀란드 지역으로도 많이 이주하여 중석기 초기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발트 해 숲 지역에서 라트비아, 러시아 북부 지역에 퍼졌던 **Kunda** 문화(8000-5000 BC)는 그것을 계승한 문화 중의 하나이다.

Kunda 문화(8000-5000 BC) 시기에 불을 지키면서 제사를 주관하였던 신관 역사제 집단이 있었고, 그들은 'ㄱ(, ㄱ)'을 모시고 살았었다. ㄱ는 ㄱ의 존칭어이면서, ㄱ이 강립하여 살고 있는 땅을 부르는 말이었다. 그래서 ㄱ의 음이 있는 지명은 이 문화인들이 이주한 곳이거나, 그 문화를 수용한 곳이다. 에스토니아의 Kunda는 그러한 곳 중의 한 곳이었었는데,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Kunda 문화 유적지가 있는 곳은 'Pulli 주거유적지'이다. 이곳은 Pärnu 강의 오른 쪽 독에 위치하고 있는데, 11,000년 전 1차 대홍수의 온난기가 끝나고 한랭 기후가 진행되었던 BC 9,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정착하였고, 가축으로서의 개의 이빨이 발견된 곳이다. 이곳의 지명 Pulli는 후대의 지명으로 보편된다.

에스토니아에 Kunda 문화가 전개될 시기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Maglemosian (ca.

9000-6000 BC) 문화가 성행하였는데, Maglemosian은 덴마크 Zealand 서부 지역의 Høng 근처 Maglemose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이 문화는 영국에서 폴란드, 스웨덴의 Skåne에서 프랑스 북부 지역에 퍼져 있었는데, Kongemose 문화(ca. 6000-5200 BC), Ertebølle 문화 (ca. 5300-3950 BC)로 계승되었다.

‘Kunda와 Kongemose’라는 지명에 보이는 ‘ㄹㄴ’음을 고려할 때 이 일대는 ㄹㄴ 문화권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백해(Onezhskya Guba)로 흘러드는 Onega 강의 지류들의 이름, {Kenozero 호, Kena 강, Voloshka강, Kodina 강, Kozhozero 호-Kozha 강, Toksha 강, Mosha 강}과 소("cow")를 뜻하는 말 { cū (복수 cȳ,"kine")의 어원 *gʷōus (소유격 gʷowes)("a bovine animal"), 페르시아 어 gâv, 산스크리트 어 go, 스코틀랜드 어 단수 coo or cou(복수 "kye")}를 참고할 때, 당시 북유럽 북극해 연안 지역에는 Cow를 물고 온 ㄹ(ㄹㄴ) 문화족이 많이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ㄴ 문화

ㄹ(ㄹㄴ) 문화권의 일부였던 북유럽의 Kunda 문화는 Narva 문화(ca. 5300-1750 BC)로 계승되었는데, 이는 에스토니아 Narva 강의 이름을 딴 것이다.

Narva(=Na+r+va=ㄴㅂ) 강의 이름을 통해 7300년 전 지구의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ㄹ 문화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ㄴ 문화가 이곳에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빙하의 얼음과 툰드라에 바탕을 둔 ㄹ(ㄹㄴ) 문화인은 예전의 기후 조건이 유지되는 북극해 쪽으로 옮겨가야만 하였고, 옮겨간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기온상승에 따라 새로운 ㄴ 문화를 수용하여야만 하였다. 노르웨이의 Nøstvet 문화 (ca. 6200-3200 BC)와 스웨덴의 Lihult 문화가 그것이다.

이 문화는 이전의 Fosna-Hensbacka 문화가 발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Nøstvet 문화는 Oslofjord 근처와 노르웨이의 해안을 따라 Trøndelag 지역에까지 나타나고, Lihult 문화는 스웨덴에서 나타난다. Nøstvet 문화 (ca. 6200-3200 BC)가 성행하였던 시기에는 Atlantic 기후(해양성 매우 따뜻함 3차:8150-5250 BP)가 진행되었는데, 기온 상승으로 얼음이 녹고 해수면은 올라가고, 이전의 문화로는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북유럽의 ㄹ(ㄹㄴ) 문화인은 ㄴ 시대가 전개되기 전에 내륙 지방의 우랄 산맥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 Oka 강과 Kama 강 일대에는 서쪽에서 전해져오는 ㄹ 문화가 성행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유틀란드 반도와 폴란드에서 러시아 지역으로 동진하기 시작한 것은 약 10,000년 전이고, 대부분의 Swiderian 문화 집단은 10,000 BP(조정연대로는 9500 BC)에 후퇴하는 툰드라를 뒤따라 북동 지역으로 이주해갔고, 후(後)Swiderian 문화집단이 7800-7600 BC 이후에 우랄 산맥 지역에까지 뻗어나갔다는 것을 참고 하면, 북유럽 지역은 Boreal 기후(대륙성 따뜻함 2차:9450-8150 BP) 시기에 ㄴ 문화기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는 이내 볼가 강 유역으로 새로운 ㄴ 문화가 전해져 왔고, 그것은 Nero 호와 Nara 강의 이름에 남아 있다. 볼가 강 중류 지역의 ㄴ 문화는 주로 강을 따라 전해졌고, 이는 R1a7-M458 유전인자의 이동방향과 거의 일치하는데, 이들의 이동 과정을 따라 가보

면, 북유럽 문화가 어떻게 카스피 해와 흑해 주변으로 전파되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Pre-Boreal 대륙성 따뜻함 1차(10250-9540 BP) 기후시기에는 이동을 적게 하고 지역단위로 사냥과 어로를 하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10,000년 전 폴란드에서 처음 출발하여 5,000년 전에 흑해주변 초원지대 Pontic Steppe의 서쪽 가장자리에 도착하였고, 2,500년 전에는 동쪽 가장자리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수렵을 하면서 이동하였고, 안정적인 정착을 하지 않았었다.

고대 유럽 상인들이 다녔던 무역로는 Volga 무역로와 Varangians에서 그리스에 이르는 무역로다. 어느 길을 가든지 북부 유럽의 관문인 Ladoga호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Ladoga 시에서 만나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이동한다. 그리고 카스피 해에서 볼가 강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Valday Hills에 도착하고, 이곳에서 Ladoga 호로 흘러내리는 강물을 따라 가면 Ladoga 시를 거쳐 발트 해로 간다. 카스피 해가 청동기 시대 이후 유럽문명의 중심지였다면, 신석기 시대 북유럽 문명의 중심지는 Ladoga 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Ladoga(이전에는 **Nevajärvi**로 불림) 호가 유럽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크다.

유럽 최대의 호수인 Ladoga 호(湖)와 Onega(=O+ nega) 호(湖) Lake Onega (also known as Onego, Russian: Оне́жское о́зеро, tr. Onezhskoe ozero; IPA: [ɐˈnʲɛʂskəjə ˈozʲɪrə]; Finnish: Ääninen or Äänisjärvi; Karelian: Oniegu or Oniegu-järve; Veps: Änine or Änižjärv) 호의 이름을 분석해보면, 이 지역에는 **늪** 문화인이 먼저 정착하였었고, 나중에 **드** 문화인, 다음에 **르** 문화인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Ladoga 호는 러시아 어 **Ladozhskoye ozero** [ˈladəʂskəjə ˈozʲɪrə] or **Ladoga** [ˈladəgə]; 핀란드 어: **Laatokka** [earlier in Finnish **Nevajärvi**]; 카렐리아 어: **Luadogu** 등으로 불리는데, 주목되는 것은 핀란드에서 일찍이 **Nevajärvi**으로도 불렸다는 사실이다. **Nevajärvi**와 관계있는 지명은 레닌그라드 주의 작은 도시 Novaya Ladoga와 Ladoga 호에서 핀란드 만(灣)으로 흘러가는 **Neva** 강의 이름이다. 이 강의 이름은 고대 핀란드 어 **nevo**(,"sea") 또는, **늪**·습지(swamp)를 의미하는 핀란드 어 **Nevajoki**, **Nevajärvi**를 줄인 말 **Neva**에서 유래했다는 설, 스웨덴 어 **ny** - "new river", 간단히는 어원 ***nev-** "water"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Neva**"(**Nevajoki**, **Nevajärvi**)의 음훈이 한국어 "**늪**"과 같다는 것이다.

핀란드 어 "**järvi**"는 한국어로 "**호수**"이고, 스웨덴 어 **ny**-(,"new river")는 한국어 **내**(川)와 음훈이 같다. 이는 동일 **늪** 문화의 전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Neva**의 어원은 **늪**·**신**이 사는 "**늪**"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말은 이 지역에 **늪**·**신** 문화인이 정착하였음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11,500-12,500년 전 이 일대에 퇴빙 현상이 진행되면서 **늪** 지형이 형성되었다가, 대홍수 후의 많은 물이 고여 유럽 최대의 호수를 이루었는데, **늪** 시대가 되어 더워지자 9450-8150 BP 시기에 시원한 이곳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곳의 **늪**·**신** 문화인의 시조쯤 된다.

Nevajärvi(,Ladoga) 호 다음으로 큰 **Onega**(,Onego) 호는 러시아 어 **Onezhskoe**

ozero[ɐ'nʲeʂskəjə 'ozʲɪrə], 핀란드 어 Ääninen 또는 Äänisjärvi, 카렐리아 어 Oniegu 또는 Oniegu-järve, 뱀 어(Veps) Änine 또는 Änižjärv로 불린다. 이 호수가 만들어진 것은 12,000년 전 정도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빙하지대로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11,500-12,500년 전 이 일대에 퇴빙 현상이 진행되면서 Ladoga 호와 Onega 호가 형성된 것이다. 호수의 러시아 어 이름 Onezhskoe(=O+ **ne**+ zh:존칭접미사 또는 -의 + skoe:지명의 여성형 어미)을 보면, ㄴ(ne) 시대(9450~8150 BP)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정착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ㄴ(ne) 문화의 흔적은 핀란드 어 Ääninen(=Ää+ **nin**+ en)과 뱀 어 Änižjärv(=Ä+ **ni**+ ž:존칭접미사+ järv:호수)에서도 볼 수 있다. Onega(=O+ ne+ ga<O+ ne+ ja<O+ ne+ zh)는 영어식 표기이다. 호수의 이름을 통해 이곳에 ㄴ/ㄴㄴ/ㄴㄹ 문화인이 정착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ㄴ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강과 호수의 이름을 찾아보기로 한다. 마지막 빙하기를 지나고 BC 11,000년대에 처음 사람이 정착한 리투아니아 지역의 말 narus(, "deep")와 nerti(, "to dive"), 노르웨이 Nøstvet, 핀란드 만으로 흘러드는 북서 러시아의 Neva 강, 핀란드 어 nevo(, "sea, 海"), 카렐리아의 Onega(=O+ nega) 호, 에스토니아의 Narva 강, 리투아니아의 Narotis 강, Naras 강, Narutis 호, Neman 강, 벨라루스의 Neris 강, Narach(, Narač) 강, Narach 호, Narewka 강, Narew 강, 고(古)프르시아 어 Narus 강, 폴란드의 Nida 강,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크로아티아의 Una(=U+ na) 강, Unac(=U+ nac) 강, 남 웨일즈의 Neath 강, 러시아의 Nero 호, Nara 강, 그리고 흑해로 흘러드는 Dnieper(['ni : pər])(=D+ nieper) 강/ Dniester(=D+ niester) 강 등등을 통해 북유럽에서 흑해 연안으로 ㄴ 문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⑤ㄷ 문화

북유럽의 ㄷ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토르(Þórr)이다. 그는 북유럽 신화의 에시르(Æsir) 중 망치를 든 자로, 그와 연관되는 개념으로는 천둥, 번개, 폭풍, 참나무, 체력, 인류의 보호, 정화, 치료, 풍요 등이 있다. 앵글로색슨 어로는 투노르(Þunor), 고대고지독일어로는 도나르(þonar)라고 하였다. 《위키 백과:토르》”

그리고 북유럽의 종족 이름으로 ㄷ 음이 들어가는 것은 Danes 족(Danes (Danish: danskere)이 있다. 이들의 이름 "Danes"는 6세기 중엽 그리스 역사가 Procopius와 Jordanes가 danī로 기록한 것에서 비롯하였는데, Dan은 전설적인 왕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노르웨이·스웨덴·아이슬란드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고대 북유럽어 dǫnsk tunga를 말하였다.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폴란드 지역까지 진공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dǫnsk tunga 어를 말하는 ㄷ(Dane) 족은 동쪽에서 진출해온 ㄷㄹ(, ㄷㄴㄹ) 문화인과 관계있다.

ㄷ 문화인이 북유럽에 남긴 흔적은 Valdai Hills에서 발원하여 러시아·벨라루스·라트비아의 Riga 시를 통과하여 발트 해로 들어가는 ‘Daugava 강/이 강의 지류 Dubna 강/Dryssa 강/Dysna 강’ 등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ㄷㄹ과 관련된 말로 스와힐리

어로 소를 Ntogo(=N+ togo), 영어로 개를 dog이라 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야생 개 dingo의 이주시기가 대략 5,000-8,000년 전 고온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유럽의 ㄷ 문화 역시 이 시기에 전해진 문화일 것으로 보인다.

⑥ㄹ 문화

북유럽의 신들 중에서 ㄹ 음으로 된 대표적인 것은 Loki (/ˈloʊki/), Loptr, or Hveðrung r인데, 그는 Asir 신족에 속하면서 Fárbaumi and Laufey의 아들이고, Helblindi and Byleistr의 형제이고, { Hel·the wolf Fenrir·the world serpent Jörmungandr·Narfi and/or Nari·Váli }의 아버지이고, Sigyn의 남편이다. 그의 출생과 가족관계를 보면 매우 복잡하다. 이는 제 각각의 문화적 배경을 지닌 여러 부족이 ‘ㄹㄹ’라는 이름으로 뭉치면서 서로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가족 관계에 보이는 신의 이름은 부족의 이름이기도 하다.

로키와 음이 비슷한 종족으로는 Lugii (or Lugi, Lygii, Ligii, Lugiones, Lygians, Ligians, Lugians, or Lougoi) 족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략 BC 100-AD 300 시기에 Oder 강과 Vistula 강 상류의 분지에 있는 Sudetes 산맥 북쪽, 현재 폴란드 남부와 중부의 대부분 지역에 거주하였던 대규모 부족 연합이었다. 이렇게 여러 부족이 뭉친 또 다른 것으로는 Suebi 족과 German 족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중·북부 유럽 진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규모의 집단들이 ㄹㄹ(Lugii) 문화, 스브(Suebi) 문화, ㄹㄹ(German) 문화를 중심으로 뭉쳐 대규모 부대를 만들어 로마군과 싸웠던 것이다.

그리고 Lugii와 음이 비슷하면서 인근 지역에 살았던 Rugii(also Rugians, Rygir, Ulmerugi, or Holmrygir (Norwegian: Rugiere, German: Rugier) 족이 있었다. 이들은 AD 1세기에 현재 노르웨이 남부 Pomerania 지역, 당시 Rogaland or Rygjafylke에서 출발하여 AD 100년대에는 발트 해의 남쪽 Vistula 강 유역으로 진출하였고, 점점 내륙으로 이동하여 5세기에는 Danube 강 계곡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었다.

AD 150년에 Ptolemaeus는 Rhougion (Rougion, Rugion, Rugium or Rugia)라는 지명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Routikleioi라는 부족을 언급하였는데, ‘Rhougion과 Routikleioi’는 Rugii 족과 관계있다. 부족 이름 "Rugii" 또는 "Rygir"는 호밀(rye)를 뜻하는 고대 노르드어(Old Norse) rugr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호밀 식용자 또는 호밀 농사꾼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보통 주요한 음식물의 이름은 신의 이름이기에, rye/rugr는 ㄹㄹ(ㄹㄹ) 신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음변화로 ㄹㄹ(Rhougi)는 ㄹㄹ(Routi)로도 발음된다.

북유럽의 ㄹ 문화인이 집중적으로 정착하여 살고 있는 곳이 Riga 만을 중심으로 한 라트비아(Latvia)와 리투아니아(Lithuania)이고, 이들 ㄹ 문화인의 세력이 커지면서 Nevajärvi 호는 Ladoga 호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북유럽의 대표적 호수의 러시아어 이름 Ladozhskoye(=Lado+ zh+ skoye)(ㄹㄹ+ zh+ skoye)를 보면, 이 호수 일대는 ‘ㄹㄹ/늑대’ 문화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북유럽어(Old Norse) ruð ‘정화(淨化) clearing’, 네덜란드(Dutch) 남성 이름 Ruud ‘늑대("famous wolf")’를 통해 ㄹㄹ(Lado)는 늑대를 뜻하고, Lado+ zh+ skoye는 ‘늑대님의 땅’ 이런 의미가 된다. 이와 관계있는 것이 러시아를 뜻하는 Rus를 라틴어로 "Ruthenia"로

표기한 것이다. 이는 ‘늑대신앙인의 땅’ 이런 의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Rus의 어원으로 강과 관련 있다는 rods-, Roðer or roðin, Ruotsi and Rootsi 등은 엄밀히 말하자면 ‘늑대’와 관련 있다. 그리고 Rudd와 발음이 비슷한 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보타크 족과 지리안 족이 제사를 드리던 신성한 숲을 부르는 말 루드(lud)가 있다. 그리고 북동유럽에 르브 문화인 Lapps 족이 있다.

⑦브 문화

ㄷ 문화 이후 ㄹ 문화가 전개되기 전에 이 일대의 주된 세력이 된 것은 늑여름 기후의 ㅁ/브 문화인이다. Valday Hills를 경계로 동쪽 불가 강 유역에는 ㅁ 문화인이 주로 살고 있었고, 서쪽 Volkhov 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브 문화인이 주로 살고 있었는데, 브 문화인의 후손이 Veps 족이다. Ilmen 호에서 Ladoga 호로 흘러가는 Volkhov 강 일대에 자리 잡은 Veps 족은 이른 시기의 러시아 연대기에는 "Весъ"(Ves')로 기록되어 있고, 일부 아랍 기록에는 Wisu로 나온다. Ves'와 Wisu의 기원은 아프리카의 Bes(/bɛs/; also spelled as Bisu)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Bes 족의 후손인 Twa 족이 많이 살고 있는 Rwanda 지역에 사람이 이주하여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BC 8000경, 또는 BC 3000경으로 추정된다. 이를 참고하면 Volkhov 강 일대에 살고 있는 Veps 족의 먼 조상은 약 10,000년 전 ㄴ 문화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왔고, 그 이후 자신들의 ㄴ 시대 문화(ㄴ ㄹ:O+neg)를 계속 이어왔는데, 이들의 문화에 결정타를 가한 것은 BC 3000경 카스피 해 연안에서 온 아리안(,Buri) 족이 전한 Vár 또는 Vór 문화였다.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늑대 문화족이 된 자들은 væringi가 되어 나중에 Vikings으로 불리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계속 Onega 호를 중심으로 자신의 문화를 이어갔는데, 결국 늑대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 이들의 다른 이름 lüdinik과 lüdilaine이다.

북유럽의 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살펴본다.

(a)Odin

북유럽 신화의 **Odin**(< Old Norse Óðinn)은 종합적 능력을 지닌 지도자(healing, death, royalty, the gallows, knowledge, battle, sorcery, poetry, frenzy, and the runic alphabet)인데, Frigg 여신의 남편이었다. Odin은 예언자("seer, prophet")라는 뜻의 라틴 어 **vātēs**와 고대 아일랜드 어 **faíth**와 관계있는 원(原)게르만 어 형용사 ***wōðaz** (또는 ***wōðō**) > 남성 명사형 ***wōðanaz**에서 유래되었고, 고대 영어 Wōden, 고대 색슨 어 Wōden, 고대고지대독 일어(OHG) Wuotan으로 표기되었다.

이것의 발음은 ‘브드>브든>보든>오든>오딘’의 과정을 거쳤다. 오든(Odin)은 ‘브드>오든’의 준어 오든(Odin)이다. 그래서 Odin의 뿌리는 ‘브드’이니, 그의 원(原)조상은 아프리카의 브드 문화인으로 볼 수 있고, 브드의 긍정적인 면은 초기의 것이고, 부정적인 면은 말기의 것이다.(Old Norse óðr "mind, wit, soul, sense",고대 영어 ellen-wód "zeal", 중세 네덜란드

어 woet "madness", 고대 고지독일어 wuot "thrill, violent agitation", wuotī "madness", wuoten "to be insane, to rage". Old Norse æði "rage, fury", æða "to rage", 고대 영어 wēdan "to be mad, furious", 고대 색슨 어 wōdian "to rage")

그리고 ‘ㅂ+ㄷ:존칭접미사’의 준어는 ‘ㅂㄷㄴ/ㅂㄴㄷ/ㅂㄴㄷㄴ’으로 나타낼 수 있고,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진출한 ㅂㄴ/ㅂㄷ/ㅂㄴㄷ 문화인의 흔적은 북유럽의 성씨 Even과 Odd에도 남아 있다. Even와 Odd는 단어 모양은 전혀 달라 보이지만, 어원은 ‘ㅂㄷ’로 일치한다. 노르웨이 어 Even(=E+ ven)은 ‘Old Norse 어 auja-, -winduR (,"gift" and "winner") > Norse 어 Eivindr > Eivind > Even’의 과정을 거쳤고, 핀란드 어 : Venäjä, 에스토니아 어: Vene, 칼레리 어(Karelian): Veneä로 표기된다. 이는 ‘ㅂㄴ’에서 파생된 것으로 노르웨이에서는 보통 흔한 이름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매우 드물다.

노르웨이의 ‘ㅂㄷ > ㄴㄷ > Odd’는 Old Norse 어 Oddr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11번째로 가장 흔한 남성이름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다른 노르드 어 (Nordic) 나라들(핀란드와 페로 제도)에서는 때때로 나타난다. 이 말은 Old Norse 어로 ‘화살의 날카로운 끝 또는 검 날의 날카로운 끝’이란 뜻인데, 번개의 날 끝을 묘사한 말에서 유래하였고, 이러한 무기를 지닌 집단이 Odd였고, 나중에 이를 성씨와 이름으로 삼았다.

노르웨이에서의 ‘Even, Odd, Oddur’와 관련 있는 것은 이 지역으로 진출하였던 Suebi 족이 사용하였던 Oder 강이다. Harz 산맥에서 발원하여 내려와 발트 해로 흘러드는 Oder 강은 { Odra, Wódra, Òdra(['wɛdra]) / 중세 라틴 어 : Od(d)era / 르네상스 시기 라틴 어 : Viadrus (invented in 1534) / 라틴 어 Viadua or Vildua / 고대 교회 슬라브 어 Vjodr }로 불리었다. Oder 강의 고대 교회 슬라브 어 이름 **Vjodr**과 Odin 신의 원이름 ㅂㄷ는 물을 뜻하는 러시아 어 **vody**, 덴마크 어 vand, 스웨덴 어 vatten, 아이슬란드 어 vatn, 라트비아 어 ūdens, 리투아니아 어 vanduo, 한국어 바다(海 <ㅂㄹ>)와도 음이 같다. 이는 강과 물이 비를 내리게 하는 천둥번개의 신 ‘ㅂㄷ(ㅂ+ㄷ:존칭접미사)/벼락/번개’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Oder 강을 타고 이동하였던 ㅂ/ㅂㄴ/ㅂㄷ 문화인들이 노르웨이에 남긴 것이 ‘Even/Odd/Oddur/Odin’이다.

(b) 불 ㅄ

‘ㅂㄷ’에 ㄹ(r)음이 첨가되면 불 ㅄ 또는 불 ㅄ가 되는데, 기본 뜻은 ㅂㄷ와 같다. 불 ㅄ를 표현한 슬라브 어 balt-는 ,“(번개의 白光),white”, “늪,swamp”/Proto-Slavic root *vol/vel- 'wet'의 뜻이 있다. 검은 비구름이 뭉쳐있는 하늘에 벼락의 하얀 섬광이 지나고, 비는 내려 늪을 이룬다. 그 늪에 하늘의 신 ‘불 ㅄ/balt-’가 살고 있다.

그를 나타낸 말이 리투아니아 어 baltas(,"white"), 라트비아 어 balts(,"white")이고, ‘발트(Baltic)’이다. 그래서 발트 해(Baltic Sea)의 Baltic의 일차적 의미에는 벼락의 섬광을 의미하는 백광(白光)(,"the white, the good",眞,善)이란 뜻이 있고, 여기서 이차적으로 용신(勇神 "the brave god")이란 말이 나오고, 다음에 고대 북유럽어 Baldr, 고대 영어 bealdor, baldor("lord, prince, king")란 말이 나왔다.

‘볼트’는 슬라브 문화권의 사람들이 가장 즐겨 사용한다. ‘볼트’를 표기한 Vlad는 남자의 이름이나 성씨로 사용되는데, 때때로 Vladislav 또는 Vladimir의 줄임말로도 사용된다. Vladimir([vlɐ'dʲimʲɪr])는 동유럽의 슬라브 문화권의 슬라브 식 이름이고, 이것의 우크라이나 식 이름은 Volodymyr이고, 게르만 식 이름은 Waldemar이다.

이 이름으로 가장 유명한 이는 Vladimir the Great of the Kievan Rus(980-1015)인데, 그의 이름을 부르는 고대 슬라브 어 : **Volodiměrъ** Svętoslavičъ, Old Norse 어 **Valdamarr** Sveinaldsson에는 볼트의 음이 그대로 있다. Vladimir의 mir는 고트 어 (Gothic) -mērs (great)("Great in His Power")로 풀이하기도 하는데, 이는 군지휘관 겸 행정관인 통치자 ‘뮐/뮈르’를 칭하는 말이다.

근동-카스피 해 지역의 Haplogroup R에서 북유럽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문화에서 볼트 (, Odin)와 관련 있는 슬라브 신화의 요소를 찾는다면, 12세기 내내 독일 Rügen(['ʁy : gən]; also lat. Rugia or Rugia) 섬에서 우선적으로 숭배되었던 Svetovid, Svantovit 또는 Sventovit 신이 있다. Sventovit 신은 범 슬라브 문화의 Perun이 독일 Rügen 섬 지역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는데, 그는 하늘의 번개로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승리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다.

그는 원래 번개 신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Beli (,또는 Byali) **Vid** { (Beli = white, bright, shining)(vit="lord, ruler, winner") }로도 언급되는데, 종종 한 손에는 칼과 활, 또 다른 손에는 각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다른 중요한 상징은 사원에서 사육되어 점을 치는 데 이용되는 백마(白馬)이다. 볼트 신의 한 형태인 Sventovit 신을 믿는 Rugii{, also Rugians, Rygir, Ulmerugi, or Holmrygir (Norwegian: Rugiere, German: Rugier)} 족은 100 AD경에 노르웨이 동남 지역에 출현한 동 게르만 족인데, 5세기에 발트 해 연안에서 다뉴브 강 계곡으로 진출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다.

(c)발트 해 주변의 볼/뵘 문화

‘볼트’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 발트 해(Baltic Sea)인데, 영어 표기 Baltic은 Balticco의 준말 Baltico 또는 Baltic이다. Baltic은 ‘볼트’로 표기할 수 있고, 이는 카스피 해 동남부, 이란 북동부 호라산(Khorasan) 지역에 있었던 볼트카 (Partakka 또는 Partukka, 이곳은 Hyrcania 또는 Verkâna으로 불리었던 지역이다)에서도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카스피 해 또한 한 때 ‘볼트(,뵘트)’가 강림해 있는 곳으로 인식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카스피 해 주변의 Haplogroup R 볼트(,볼트/뵘) 문화인은 가는 곳마다 큰 호수 또는 바다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북유럽에 Baltic 이라는 말이 남아 있는 것이고, ‘Balcia/Baltic’라는 말은 11세기 이후에 많이 사용되었다. 현재 발트 해 연안의 사람들을 Balts 또는 Baltic 인 (리투아니아 어: baltai, 라트비아 어: balti)이라 부르는데, 이들의 혈통과 문화는 Haplogroup R1a와 매우 밀접하다.

(d)Buri, Borr/Burr

북유럽 문화는 대체로 외부 지역에서 이주해간 사람들이 남긴 것이 많기 때문에, 북유

렵의 불(Buri, Borr/Burr) 또한 다른 지역에서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북유럽 신화에는 Búri의 아들이자 Bestla의 남편, Odin과 그의 형제들의 아버지인 Borr 또는 Burr(Old Norse 어 "son"; Bor, Bör or Bur)이 있다. 북유럽 신화에 있어 Borr의 기원과 역할은 명확하지 않다.

19세기에 Finnur Magnússon가 Borr로 불리는 페르시아 인들(Borz)이 Caucasus 산맥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는데, Haplogroup R1a의 분포 지역을 보면 카스피 해 일대의 아리안이 Buri 족의 조상이거나 친척일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 BC 3000경의 인류이동을 고려하면, 흑해-카스피 해 일대의 초원지대에서 발트 해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불/불 문화의 늑대 신앙족이었고, 이들이 유럽에 남긴 말이 Volyn/Buri, Borr/Burr, Vol이다.

그리고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에 언급된 게르만 부족 중에 Buri 족이 있다. 고대에 흑해에서 발트 해로 가는 최단거리 이동로는, 남(南) Bug 강을 따라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올라가서 Bug 강을 타고 발트 해로 내려가는 길이다. Bug 강과 Southern Bug 강을 연결시키는 오늘날의 폴란드·우크라이나·벨라루스에 걸쳐 있었던 Volyn으로 불리는 지역을 Buri 족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곳은 Oder 강의 옆으로 흘러내리는 Vistula 강 상류 지역이다. Haplogroup R1a 집단의 일부는 카스피 해와 아랄 해 사이 지역에서 흑해 서북쪽 초원지대를 거쳐 중앙 유럽 Volyn 지역과 Harz 산맥 일대로 진출하였고, 이곳에서 Oder 강과 Vistula 강을 타고 발트 해로 내려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던 것이다. Volyn 인근 지역에는 Buri 족과 언어 풍습이 매우 같은 Suebi 족이 있었는데, 이들은 발트 해로 들어가는 Vistula 강과 Oder 강 사이 지역을 거의 다 장악하였었다. Buri 족과 Suebi 족의 뿌리는 근동 지역 Haplogroup R1a 집단과 Haplogroup I2b 집단이다.

북유럽의 Borr 또는 Burr는 Buri의 자손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는 발칸반도 Dacia 지역의 The Burs (Latin Buri, Buredeense, Buridavenses and Greek Βούροι)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은 1-2세기에 Dacia 지역의 Buridava에 수도를 두고 살았었다. 이들은 불(Bur) 문화를 중심으로 여러 부족이 연합하였는데, 발칸 반도 Dacians 족의 왕 Burebista나 Burus (Thrax)(,Bhūri-Kanta, a Bessian from Thrace)에서 보듯이, bur-는 Dacian Thracian 족의 이름에 사용된다. 이를 산스크리트 어 bhūri(,"abundant, rich")와 이란어 vista(,"possessor")와 연관 짓기도 한다.

그리고 이 말은 영국의 Bury(/'beri/, locally also /'bɔri/) is a town in Greater Manchester, England. It lies on the River Irwell, 5.5 miles (8.9 km) east of Bolton, The name Bury, (also earlier known as "Buri" and "Byri") comes from an Old English word, meaning "castle", "stronghold" or "fort", an early form of modern English borough. 와 노르드 어(Nordic) Borg(,"castle"), 그리고 나이지리아 북서부/베냉의 북부에 있는 Borgu (,Borgou)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북아프리카 Borgu 지역 사람들은 Bariba(=Bari+ ba)와 Borgawa(=Borga+ ba/wa)로도 알려져 있다.

Borg은 Borg, Saarland, Germany Borg á Mýrum, Iceland Borg, Vestvågøy, Norway Diocese of Borg, Norway Borg Massif, Antarctica Borg El Arab, Egypt, 중앙아프리카 Chad 호 북부에 있는 Borku (,Borkou) 또는 Borgu (Borgou) 등 여러 곳에

있다. 이를 통해 청동기 시대에 불(, 불/Buri/Borg) 신앙이 매우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있는 곳은 대체로 Haplogroup R1a의 분포 지역인데, 차드 호 지역은 카스피 해 주변 Haplogroup R1a 사람들이 이주한 곳이다.

이들의 이동과 Andronovo 문화, Pazyryk 문화, Tagar 문화와 Tashtyk 문화, 흉노 통치하의 Tarim mummies 안에 있었던 고대 Tanais 거주자들의 이동 흐름을 연결 연장해보면, 바이칼 호 주변의 Buriyat 족 또한 Buri 문화를 수용하였거나, 그 문화집단이 이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Buriyat 족 지역에서 초원을 따라 동남으로 내려오면 만주를 지나 발해 주변에 있었던 발해(渤海) 연안에 있었던 발조선(發朝鮮)·발숙신(發肅愼)을 만나게 된다. 어두에 보이는 발(發)은 Borr 또는 Burr을 음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문화 족이 한국어에 남긴 것이 ‘부리’; “한집안의 조상의 혼령이나 선대(先代)로부터 위해 내려오는 귀신을 무당이 이르는 말” “일부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

이나 동물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이니, 한국어 ‘부리부리하다:① 시원스럽고도 무섭게 크고 열기가 있다’는 지배자 Buri의 모습을 잘 나타낸 말이다.

이 문화 집단이 한반도에 온 또 다른 흔적은 삼한의 소국 통치자를 부르는 칭호 변예(樊穢)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변예는 불례(不例[bù][lì])로도 표기되었다고도 하는데, ‘불례[bu][lì]’는 Buri를 나타낸 말이고, 변예는 에스토니아 어: Vene, 카렐리아 어(Karelian): Veneä와 관계있을 것이다.

(e)새로운 Baltic 인

검색창:Buri 검색창:Corded Ware 검색창:Kurgan hypothesis

이집트와 중동 지역의 역사적 변동은 유럽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대략 3000-2350 경 BC 유럽 중북 지역 라인 강에서 볼가 강, 발트 해 연안에 Corded Ware 문화, 또는 Battle Axe 또는 Single Grave 문화가 널리 퍼졌었다. 이 문화의 중심 지역은 중앙-동부 유럽의 ‘폴란드/우크라이나/벨라루스’에 걸쳐 있었던 Volhynia, Volynia, 또는 Volyn으로 불리는 역사적 유적지와 거의 일치한다. 이는 이 지역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불/불 문화족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 문화의 가장 오래된 유물은 BC 3000경의 것으로 폴란드 중·남부의 Kujavia and Małopolska 일대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문화는 BC 2350년경 Beaker 문화 속으로 편입되어졌다. 유럽에서의 사회변화는 중동의 사회변화와 거의 같이 맞물려 진행되었는데, Corded Ware 문화, 또는 Battle Axe 또는 Single Grave 문화는 수메르 문명과 거의 운명을 같이 하였다.

Uruk period (ca. 4400-3200 BC) Jemdet Nasr period (ca. 3100-2900 BC) Early Bronze Age Early Dynastic **Sumerian city-states (ca. 2900-2350 BC)** Akkadian Empire (ca. 2350-2193 BC).

《wikipedia:Corded Ware 》

폴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먼저 나타난 이 새로운 문화족은 북유럽 Narva 문화권 지역과 Neman 문화권(7th-3rd millennium BC)으로 진출하여, 기존의 문화인과 함께

새로운 Baltic 인을 형성하였다. Narva 문화 또는 동부 Baltic (ca. 5300–1750 BC) 문화 지역을 점령할 당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역에서 대략 3,000개의 전투용 도끼가 발견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북유럽을 평정한 ‘새로운 Baltic 인’은 발트 해 지역에서 불가 강 지역으로 뿔뚝이주하였는데, 이들은 모스크바를 지나 루마니아 Călărași 지역 Danube 강의 작은 지류 Berza 강과 Gălățui 호수까지 진출하였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들은 발트 해 연안의 서부 Balts 인과 동유럽 슬라브 문화에 동화되어진 동부 Balts 인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새로운 Baltic 인’들의 러시아 지역 진출 방향을 볼 적에, 이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Ilmen 호에서 Ladoga 호로 흘러가는 Volkhov 강이다. Volkhov의 어원은 명확하지 않는데, 스웨덴어로 바다를 hav라 하니, Volkhov는 "Volk의 바다"로 직역되고, Volk는 게르만어로는 국민("people" or "nation")을 뜻하지만, 슬로베니아어로는 늑대("wolf")를 뜻하니, Volkhov는 ‘늑대의 바다’ ‘늑대의 강’이란 뜻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Baltic 인’은 늑대 문화족 Volk이고, 이들의 신 또는 지도자는 Volka(Vol+ ka:존인칭어미)로 불리었을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줄여서 Vol로 불렀다. 이들은 원래 맹세와 협정(oaths and agreements)의 여신 Vár or Vór (Old Norse 어, "pledge" 또는 "beloved")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Vár or Vór은 그들의 지도자(Old Norse 어 foringi, "leader")였고, 그에게 충성의 약속을 한 사람들을 væringi(=vár "pledge, faith" and gengi "companion")라고 하였다.

이 말은 라틴 어 vagor, vagārī(,방랑자 "wander")에서 유래된 말이다. 원래는 깨달음을 얻고 자유롭게 떠도는 현인(賢人)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이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vagabond"인데, 왕에게 봉신으로서의 충성을 맹세한 무리를 Varangians 또는 Varyags로 불렀던 것이다. 이들이 9–11세기에 러시아 지역으로 들어간 중세 Vikings의 일부이다.

3) 흑해 주변 동유럽 지역

① 흑해

흑해는 대홍수 이후 바다로 형성되어졌고, ‘홍해/백해/황해’로 불리는 바다의 이름과 같이 색을 붙여 지은 통상적인 바다 이름 중의 하나이다. 고대 그리스어로 Póntos Áxeinos(, 비호의적인 바다 "Inhospitable Sea")(ca. BC 475), 현대 그리스어/마우리 탈라사(Μαύρη Θάλασσα), 터키어/Kara Deniz, 슬라브 문화권/Чёрное Море(체르노예모레)로 부른다.

흑해의 이름을 언어 문화적으로 정리하면, 바다의 여신 Thalassa (, "sea")와 Kara Deniz를 통해, ㄷ 문화 시대에는 ㄷ(Deniz) 또는 ㄸ(Thalassa, 아나톨리아의 Toli) 신이 바다를 지배하였고, 다음에 ‘ㄹ Marea’, ‘ㄷ Póntos’신이 지배한 것으로 정리된다. 흑해의 이름에 ‘ㄷ’신과 ‘ㄷ’신의 이름이 없는 것은, 이 시대에는 흑해 주변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②Dnieper['ni:pər] 강

Dnieper(['ni : pər]) 강은 Valday Hills에서 발원하여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거쳐 흑해로 흘러드는데, 러시아 어 Dnepr([dnʲɛpr]), 벨라루시 어:Dniapro([dnʲa'pro]), 우크라이나 어:Dnipro([dni'pro])로 불리고, {고대 그리스:Danapris, 고대 로마: Danaper,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 Borysthenes, 훈(Huns)족: Var, Crimean Tatar: Özü}로도 불렸다.

Dnieper의 어두어 'D-'의 출처를 원(原)인도유럽어 *dānu-:river, 고대 페르시아어:dana("river")로 보기도 하는데, ㄴ(川), nr-, nar-은 (강)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적인 존재를 칭할 때 흔히 사용되는 준어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영어 'The'로 보면 된다.

③Dniester 강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발원하여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를 거쳐 흑해로 흘러드는 Dniester([ni : stər/ nees-tər]) 강은 루마니아 어: Nistru, 이디시 어: Nester, 우크라이나 어:Dnister, 러시아 어:Dnestr, 터키 어:Turla, 라틴 어:Tyras, 그리스 어:Danastris, Iranic Sarmatian Dānu nazdya "the close river." 등등으로 불린다. Dnieper 강의 주인이 'ㄴ브'라는 것을 알았다면, Dniester([ni : stər/ nees-tər])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Dniester([ni : stər/ nees-tər])는 ㄴ 시대의 지배자 'The ㄴ들'(The niester)을 나타낸다.

④Danube 강

Danube 강의 이름은 라틴어로 Danubius/ Danuvius/Ister로 표기되는데, 이 중에서 Ister는 고대 그리스 어 Istros에서 유래된 말이다. 발칸 반도의 Dacian/Thracian 어로는 Donaris/Donaris (Τάναϋς in Greek, upper Danube) and Istros (lower Danube)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Istros는 산스크리트 어 iṣiras("swift")에서 유래된 말로 보는데, 헝가리 어로 신(神)을 Isten이라 하는 것을 참고하면, 구석기 시대 아프리카에서 비롯된 '으스'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나올 듯하다.

Danube는 원(原)인도 유럽어근 *dā ("to flow/swift, rapid, violent, undisciplined.")에서 유래된 천하(天河)를 칭하는 말 *dānu("river")에서 파생된 강의 이름 중의 하나이다. 이 강의 이름, { 세르비아 어 Dunav([dŭnaʏ] 또는 [dŭna : ʏ]) · 슬로벵 어 Dunaj(Dun a+j:존칭접미사) · 우크라이나 어 Dunai([du'naj]) }를 보면, 'Danube'는 'ㄷㄴ 신의 신체

(神體)/신자(信者)’를 의미하는 ‘드눅브(Danube, Danavas:드눅+브)’로 해석된다. 그래서 Danube 강의 문화적 바탕은 드(Da) 또는 드ん, 드눅(Danu) 문화이라고 할 수 있다.

⑤Don 강

드의 존어 드ん을 이름으로 하는 Don 강은 모스크바 남동쪽 Novomoskovsk에서 발원하여 Azov 해로 흘러든다. 이곳 외에도 스코틀랜드·인도·라오스·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프랑스·영국에도 Don 강이 있다.

4)흑해~카스피 해 일대 문화의 고고학적 정리

①신석기시대 ‘눅’·‘드’ 문화

세르비아어로 ‘석인(昔人)이 살았던 곳’("the place of the old man")으로 불리어진 Danube 강변의 세르비아의 Starčevo를 중심으로 한 신석기 문화(6200-5200 BC, 또는 ca. 5500-4500 BC)를 살펴보면, 발칸 반도에서는 5500-5200 BC 시기를 경계로 눅 문화시대(6200-5200 BC)에서 드 문화시대(ca. 5500-4500 BC)로의 전환이 있었다고 짐작된다. 이것이 시작된 BC 6200 시기는 약 8,150년 전 해양성 매우 따뜻함(Atlantic) 기후의 시작점과 일치한다. 언어와 기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당시 세르비아 내륙 지역으로 이주해온 초기의 사람들은 아마도 아프리카에서 출발하여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거쳐 온 눅브 문화인이었고, 그 뒤를 이어 나중에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출발한 드 문화인들이 발칸 반도로 이주하여 후기 신석기 Hamangia 문화를 이루었을 것이다.

Hamangia 문화가 시작된 약 7,250년 전부터 지구는 고온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 이전과는 다른 문화가 요구되었고, 당시 문화 전환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세르비아의 수도 Belgrade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Vinča 문화(5500-4500 BC)와 헝가리의 Körös 강(루마니아의 Criş 강) 주변의 Criş 문화(5800-5300 BC)이다. Criş 문화는 그 이전 문화의 종결이고, Vinča 문화는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었다. 이 문화는 신석기 시대 기온이 최절정으로 치솟아 올랐던 BC 4200경 고대 그리스의 원(原)선주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Pelasgians의 침입으로 막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시기는 Hamangia 문화(5250~5200-4550~4500 BC)가 막을 내린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바로 이 전환의 시기에 흑해 연안에 Hamangia 문화가 시작되었었다. 이 문화인은 신석기 초기부터 이 지역에 살아왔던 기존의 사람들과는 달랐다. 이들은 아마도 투르크인의 조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오스만 제국의 사람들이 발칸 반도 남부를 차지하였듯

이, 그렇게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Danube 강과 흑해 그리고 Muntenia 사이의 Dobruja(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지역으로 들어와 신석기 후기 문화를 이루었다. 바로 이 시기에 불가강 중류의 Samara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Samara 문화(5천 년대 후반-4천 년대 초 BC)가 전개되었고, Dobruja와 Samara 지역의 중간에 Dnieper-Donets 문화(대략 5000년대-

4000년대 BC)가 전개되었었다.

발칸 반도의 고온 시기 신석기 문화를 일차 막 내리게 한 것은 그리스 해양 문화인들이 다. 그들은 기온상승에 따라 발칸 반도 내륙 시원한 산악 지역으로 이동 침입하였고, 이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당시 Starčevo-Kőrös-Criş 문화인들은 아마도 Carpathian 산악지대에서 Dniester 강과 Dnieper 강 사이(현재의 루마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에서 발달하였던 Cucuteni-Trypillian 문화(ca. 4800-3000 BC) 지역으로 이주하였다가, 해양성 매우 따뜻한 기후(8150-5250 BP)가 끝나면서, 완전 막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기온이 최절정으로 치솟아 올랐던 BC 4200경에 Pelasgians의 침입으로 Starčevo 문화, 즉 발칸 반도의 ㄷ/ㄸ 문화가 막을 내리면서 ㄷ 문화족은 흑해로 흘러드는 Don 강을 지나 북방으로 계속 이주하여 우랄 산맥 남부 오른쪽 지역의 주요한 Irtysh 강의 지류인 Tobol 강, 이 강의 지류인 Uy 강/Iset 강/Tura 강/Tavda 강/Ubagan 강 등의 강 이름에 ㄷ 문화의 흔적을 남겼다.

이 강의 위에 오브(Ob) 강과 카짐(kazym)(ㄱ 문화) 강, 나딤(Nadym)(ㄴ 문화) 강이 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던 ㄴ 시대와 ㄷ 시대에는 북극해에 가까운 노브고로드 공국 지역, 네네츠(NeNets) 지역, 그리고 나딤 강, 투라 강, 토볼(토베르) 강이 흐르는 지역이 살기 적당하였고, 이 강 주변에서 오늘날 네네츠 족의 생활방식과 같은 유목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기후가 늦여름 정도로 내려가기 시작하자 Oka 강의 지류인 모스크바 강 주변으로 모여 살면서 ㄴ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었을 것이고, 이 이후 모스크바에서 발칸 반도에 이르는 지역의 문화전개 과정은 Marija Gimbutas(1921-1994)의 쿠르간 가설(Kurgan hypothesis (also theory or model)에 잘 정리되어 있다. 검색창:Kurgan hypothesis

②청동기시대 ‘ㄴ’·‘ㄷ’ 문화

흑해와 카스피 해 일대 초원지대에서의 ㄴ 문화와 ㄷ 문화는 청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지역의 청동기 시대 이후 문화 변천을 간단히 정리한다.

{ 카르파티아 산맥(Carpathian Mountains)~루마니아 초원 Dniester and Dnieper 지역}~우랄 산맥 근처 초원 지대 } 사이의 지역에서 전개되어진 청동기 시대 이후 문

화를 연대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Dnieper 강 중류 문화(3200-2300 BC), Fatyanovo-Balanovo 문화(3200-2300 BC), 중기 청동기 Poltavka 문화(2700-2100 BC), 후기 청동기 Abashevo 문화(ca.2500-1900 BC), Sintashta 문화(2100-1800 BC), **Andronovo 문화(2100-1400 BC)**, Karasuk 문화 (1500-800/700 BC), Tagar 문화(700-300 BC)로 정리되어진다.

시베리아 초원지대에 청동기 문화의 흔적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4000대 말-3000년대 초 BC였다. 당시 유럽과 시베리아 일대에서 청동의 원료 공급은 Kargaly 광산지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인근에 Andronovo와 Sintashta가 있다. 이 지역에 청동기 제작이 시도된 것은 BC 3000경이었지만, 본격화 된 것은 BC 21세기 기온이 최상승한 시기부터였다. 그

리고 18-19세기 BC, Sintashta 문화(2100-1800 BC) 문화의 전성기에 Kargaly에서는 과도하게 많은 광산 작업이 이루어졌었다.

말이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4000-3000경 BC이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퀴가 등장한 것은 BC 3000경이었다. 당시는 나무바퀴였기 때문에 초원을 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는데, BC 21세기경 Sintashta 문화 지역에서 초원을 달릴 수 있는 금속 바퀴가 발명되었다. 인류사를 ‘금속제 마차바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버린 Sintashta 문화는 BC 1800을 전후한 기온 급강하와 상승의 변화를 견디지 못하여 무너졌는데, 이것은 Srubna 문화(18-12세기 BC)로 이어졌었고, 당시 Sintashta 문화권 내부의 상황에 따라 일부 핵심 지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망명하면서, ‘금속제 마차바퀴’ 문화는 주변 지역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그리고 이 문화를 흡수한 Andronovo 문화는 세력을 넓혀 BC 1400경까지 이어졌었다.

Andronovo 문화는 서시베리아와 서아시아의 초원지대에서 발달된 청동기 문화인데 2100-1400 BC에 번성하였고, Alakul(1800-1400 BC)문화와 Fedorovo(1700-1300 BC)문화가 하위 그룹 문화이다. 이 문화의 복단은 Andronovo인데, 남쪽과 동쪽으로 확산하였고, Karasuk 문화(1500-800 BC)로 계승되었다. 카라수크 문화는 오르도스 지역을 거쳐 중국의 청동기 문화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청동기 문화의 발전 과정 중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Sintashta 문화와 Andronovo 문화이다. 이 두 문화가 시작될 무렵 이집트에서는 중왕국 제11왕조(2134-1991 BC)가 시작되었다. 당시 세계는 BC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초원에서 청동기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정체 상태에 들어갈 때, BC 1500경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히타이트 족이 철제 무기를 만들어 더 뛰어난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것으로 주변 지역을 장악해나갔다. Andronovo 문화보다 더 강력한 문화가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다가 기온 하강이 진행되어 사람들은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Sintashta 중심의 Andronovo 문화는 완전 무너지고, 대신 Srubna 문화와 Karasuk 문화 중심의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란-인도의 아리안 족이 힌두쿠시 산맥 남쪽으로 대거 이동한 것은 이때였다.

당시 기온의 변화를 보면, 기온하강(1500경-1070년경 BC)과 기온상승(1070-700 BC), 기온급강하(BC 700), 그 후 BC 220경까지 지속적 상승 후 급강하로 정리된다. Andronovo 문화가 무너지고 나서 기온하강의 변화가 있었던 1400-1070 BC 사이의 기간에, 이집트에서는 바알(Baal) 숭배가 성행하였고, BC 3000경의 청동기 시대에 처음 나타난 ‘불(불, 불)’ 문화는 BC 1500경에 나타난 철기 문화의 등장 이후 Karasuk 문화(1500-800 BC)기에 더욱 세련되게 다듬어져 널리 퍼져 나갔다.

③철기시대 쿨(, Ку-, Ku-) 문화

(a)철의 발전

철(鐵)을 뜻하는 영어 iron의 어원에 대하여 Watkins은 원(原)인도유럽어 *is-(e)ro-

(,"powerful, holy") 또는 원(原)인도유럽어 *eis(,"strong"), 산스크리트 어 isirah (,"vigorous, strong"), 그리스 어 ieros(,"strong")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리그베다》에 나오는 동사 is- (ईश, Ish)('할 수 있는, -의 主君'("capable of", able to" and "owner, ruler, chief of"))와 관계있고, 이들은 ‘으스’에서 유래한 것이다. 철은 청동보다 더 강력하고 힘센 금속이라는 것이다.

철(iron)이 사용된 초기의 유물로는 북부 이집트 Gerzeh의 무덤에서 발견된 9개의 작은 철 염주 구슬(BC 3200), 아나톨리아 고원의 Hattic 무덤에서 발견된 철을 녹여서 날을 만든 단검(BC 2500경), 터키의 Kırşehir 주 Kaman-Kalehöyük에서 만들어진 탄소 함유의 강철(steel)(BC 1800경) 등이 있고, Chaldaea와 Assyria에서는 BC 4000 정도의 시기에 철(iron)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아나톨리아 고원에서는 구리의 가공기술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있었던 만큼, 철 가공 기술도 앞서 있어 BC 2000경에는 철을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인도의 갠지스 계곡에서는 BC 1800경에 철을 제작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의 (강)철은 제작비용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보석과 같은 품목으로 취급되었고, 그 대신 청동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1565-1535 BC부터 기온이 하강하게 되자 생존을 위해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히타이트 족이 고가의 (강)철 제품을 체계적으로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면서 당시 세계의 지배자로 등극하였다. 주변국은 아직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히타이트 족의 철제 무기는 세계를 뒤 흔들었고, 이에 저마다 값싼

강철을 만드는 기술에 매달렸고, 마침내 1300-1200경 BC 지중해에서 주석과 탄소를 이용하여 더 값싸고, 더 강하고, 더 가벼운 철(iron)을 만들게 되면서, 새로운 철기 문명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근동의 철기 시대는 Iron I기(1300~1200-1000 BC), Iron II기(1000-600 BC)로 나누는데, 정확한 구분연대는 BC 1069의 기온 저점 때이다.

검색창:Iron Age

Iron I기(1300~1200-1000 BC)는 냉온 건조하였고, Iron II기(1000-600 BC)는 온난 건조하였다.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농산물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자, 인류는 생존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생산증가를 위해 더 단단한 농기구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마침내 BC 930경 요르단 Tell Hammeh에서는 최초로 철을 녹여 만드는 로(bloomery 연철로, 괴철로)가 개발되었다.

이 기술은 철제품의 대량공급을 의미하고, 이 시기부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키타이 문화의 초기 형태가 나타났다. 스키타이의 본거지 중의 한 곳인 폰틱 스텝과 코카서스(Pontic steppe and the Caucasus) 지역의 철기시대는 900-800경 BC의 코반 문화, 체르노고로프카와 노보체르카스크 문화(Koban and the Chernogorovka and Novocherkassk)와 함께 시작되었고, 철기 문화는 둘 문화 키메리언 족(,"Thraco-Cimmerian")의 이주를 통해 Hallstatt C 문화지역으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연해주 얄콥스키 문화(9-5세기 BC, 함경북도에서 연해주 해안가에 분포한 철

기문화권)에서도 철기가 제작된 것이 바라바쉬-3 유적(7-5세기 BC)에서 발견되었다. 북부 이집트(BC 3200)와 Chaldaea/Assyria(BC 4000경)에서 철이 처음 제작된 후 긴 시간을 통해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인도와 중국 지역을 지나 극동 지역까지 철기 문화가 전파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쇠신식 청동바퀴와 청동검을 쥔 자가 세력을 팽창하였던 시대에 이어, 철제무기를 가진 자가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알려 준다. Karasuk 문화(1500-800 BC)기간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전환되어 보편화되는 과도기였다.

그리고 히타이트 족은 BC 2000년경 아나톨리아 고원에 등장하였는데, BC 1500경 제철기술을 발달시켜 주변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하여 Suppiluliumas I (1380경-1346경 BC) 때 최전성기를 누렸었다. 히타이트의 왕은 Kumarbi로 군사령관이었고,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이었다. Kumar은 인간으로서의 군사령관을 나타낸다면, Kurmarbi는 군신(軍神)으로서의 왕을 부르는 명칭이다. 아나톨리아 고원 히타이트 왕국의 제철기술은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원천기술이었기 때문에,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 히타이트의 Kumarbi 숭배문화는 제철기술과 함께 세계로 퍼져나갔다.

히타이트 족의 아나톨리아 고원 진출 이동로를 볼 때 Kumarbi 문화의 𐎧(Ku)는 유럽에서 가장 높다는 엘브루스 산(5,642m)이 있는 카프카스 산맥과 매우 밀접한 관

련이 있는데, 카프카스(Kavkáz)는 가비(Kavi, 神) 𐎧𐎶(káz=ká+ z:준칭접미사)가 머무는 곳이다. 이를 통해서 초기철기문화시절 카프카스 산맥 엘브루스 산의 주신은 𐎧𐎶(>𐎧𐎶> 𐎧𐎶>𐎧-)의 약칭‘𐎧-(Ko, Ku)’로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카프카스 산맥 주변 지역에는 ‘𐎧’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다. 히타이트 족의 Kumarbi(=Kuma+ r+ bi)의‘𐎧-(Ku)’, 카프카스 산맥 남쪽에 살았던 고대 Oghuz(=O+ g huz=O+ ká+ z) 투르크 족의 이름에 보이는 ‘𐎧-(ká)’, 이들에 속하는 Bozok 부족 연합의 하위 지파에 속하였던 Kay 부족 또는 Kai 부족(투르크 어: Kay boyu)의 이름 ‘𐎧-(Kay, Kai)’에서, 당시의 주신(主神) ‘𐎧-’를 볼 수 있다. 이들의 ‘𐎧-’ 문화는 철기와 함께 널리 전파되어 갔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청동기/철기의 교체기에 이 문화를 접한 흔적이 보인다.

(b) 𐎧-(, Ku-) 문화의 전파

중국

중국 사서에는 초원 지대의 유목민을 호(胡[hú])족이라 하였다. 고(古[gǔ])와 호(胡)의 고음(古音)은 서로 같기 때문에 호(胡)족은 Ku-족이고, 중원의 한족은 이들을 통해 𐎧-(, Ku-) 문화를 받아들였다. 중국 지역의 𐎧- 문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본다면, 주(周)강왕(康王 재위 1021-996 BC) 25년의 청동기 소우정에 「우공귀방」(盂攻鬼方)이 적혀 있는데, 귀방(鬼方)은 귀(鬼[guǐ]귀신, 지혜롭다, 교활하다, 멀다, 먼 곳))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나타내는 말로, 현재의 오르도스 연안 부근 또는 그 서쪽 지역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만주 지역의 오룽포 사람이 ‘꾸기’, 아이누 족이 ‘수메렌 구루’, 러시아 인이 길라

크, 통구스 족이 Kil·Gil·Killekko로 부르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당나라 《통전(通典)》에는 귀(鬼)를 믿는 나라라는 뜻으로 귀국(鬼國)으로 적혀 있다. 귀방과 귀국은 황토고원의 초원으로 연결되니, 초원지대에는 ㄱ-(,Ku-) 문화가 성행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귀(鬼[guǐ])와 같은 음으로 발음되는 것에 기(夔;kuí, k'uei)조심하다, 두려워하여 삼가는 모양, 외발 짐승)가 있다. 이것은 외발 산신, 비를 오게 하는 용, 북, 사람 얼굴의 원숭이, 야크, 버팔로 등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음악과 춤을 창안하였다고도 한다. 기가 하였던 일을 보면, 기는 귀신(鬼神)을 모시는 샤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당시 사회의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귀(貴[guì,guǐ])를 성씨로 하는 집단으로 남았는데, 중국 서남부의 귀주(貴州)는 기(夔) 문화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는 귀가(貴嘉 きよし)·귀량(貴良 きよし)·귀광(貴廣 たかひろ)·귀양(貴洋 たかひろ)·귀석(鬼石 おにし)·귀택(鬼澤 おにざわ) 등등의 성씨가 있는데, 이들 역시 ㄱ-문화를 계승해오던 집단일 것이다.

인도·동남아시아

인도의 오리사 주에서 주로 통용되는 Kui 어가 있다. 이는 { Kandh, Khondi, Khond, Khondo, Kanda, Kodu (Kōdu), Kodulu, Kuinga (Kūinga), Kuy }로도 불리는 남 중앙 드라비다어로 Khonds 족이 사용하는 말이다. 이 언어 사용자들이 카스피 해 주변에서 인도 지역으로 내려간 ㄱ-문화인으로 인도의 Kui 또는 Kuvi 문화인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느 시기엔가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인도 남쪽의 타밀 지방과 스리랑카로 진출하였고, 그 흔적은 타밀어 Ko(,王)와 브라미 문자로 'KoVeta'(ㄱㅂ+ㅌ:존칭접미사)라는 글이 BC 2세기 스리랑카 왕의 무덤에서 발굴된 기록물(seal)에 남아 있다.

그리고 그들 중의 일부는 동남아시아로 이주하였고, 그 흔적은 동남아시아 몬-크메르 족에 속하는 크메르 족(Khmer)과 Kui 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문화집단의 일부인 Kui 족과 마오리 족의 Kui, 인도의 Kui는 서로 관련이 있다.

이들이 동남아시아에서 태평양으로 지나갔던 길목에 있었던 참파 왕국은 ㄷ("Dua") 족과 ㄱ("Cau") 족이 주요 종족이었는데, 둘은 풍습과 관습이 달라 전쟁도 많이 하였었다. ㄷ 족은 Amarvati와 Vijaya에 살았고, ㄱ 족은 Kauthara와 Panduranga에 주로 살았다. ㄱ 족이 살았던 Kauthara는 '코다라(쿠다라), 코사라'로 발음할 수 있는데, 고대 인도에 코살라 국이 있었다. 아마도 참파국의 Kauthara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백제 지역으로 이주 정착하였던 적이 있었을 것이고, 이들을 통해 ㄱ-(Ku) 문화가 한반도에 전해졌을 것이다. 전남 함평 지역을 기성(箕城)으로 불렀었는데, 이는 기자(箕子) 또는 키(Kui)와 관련 있을 것이다.

제철 기술을 가진 군사집단(Kumar)이 인도 남부를 통하여 한반도로 이주한 흔적은 인도 남부 타밀의 Kavadi(, KoVeta)를 통해 알 수 있다. Kavadi는 Kavadi Attam이라고도

하는데, 전쟁의 신 Murugan을 숭배하는 의식을 행하는 동안 헌신(獻身)자들에 의해 시행되는 육체적 고행이다. Kavadi 행사에 사용되는 작은 가마 모양의 신의 제단은 헌신자의 어깨 위에서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반원형으로 굽게 만들어 교차시킨 두 개의 나무나 강철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때로는 Murugan 신의 바퀴를 뜻하는 꽃이나 공작의 깃털로 장식하기도 하여, 무게가 30kg이나 나가는 것도 있다.

가장 불만한 것은 vel kavadi인데, 헌신자는 108개의 쇠꼬챙이(Vel)를 가슴이나 등의 피부를 꿰듯이 꽂고, 2m가 넘는 공작 깃털로 장식된 운반 가능한 제단(Kavadi)을 올려 메고, 불길을 걷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들의 등가죽에 밧줄을 꿰어

당기거나, 낚시 줄을 등가죽에 걸고 끌어당기기도 하는데, 이를 행하는 동안 헌신자들은 무아지경의 황홀경에 빠져 고통을 느끼지 않고, 피도 흘리지 않고 어떤 상처도 남지 않는다.



도표21. (Kavadi Attam) 《wikipedia:Kavadi Attam 》

이 의식의 핵심은 전쟁의 신 Murugan을 찬양하고, 초인적인 힘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 의식을 치른 전사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임전무퇴로 전투에 임하게 된다. 이러한 Kavadi 의식에 딱 맞는 장면이 《후한서》와 《삼국지》의 마한에 대한 기록에 보인다.

“(마한 지역의) 사람 됨됨이는 몹시 씩씩하고 용맹하여 소년 시절에도 집을 짓는 자가 있다.(이것은 Kavadi를 만들어 매는 것을 의미) 힘을 낼 때는 노끈으로 등가죽을 꿰어서 이것을 큰 나무에 붙들어 매어 놓고, 악! 소리를 지르면서 잡아당겨 이것으로 힘을 시험 한다”(그들의 등가죽에 밧줄을 꿰어 당기거나, 낚시 줄을 걸어 당기는 것) 《후한서》<동이전, 한(韓)>

“국가나 관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성곽을 쌓게 하고(이는 전쟁에 대비하는 것을 의미), 또 모든 나이 젊고 용맹하고 씩씩한 자를 뽑아서 모두 등가죽에 큰 노끈을 꿰어 기다란 큰 나무에 붙들어 매고 날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잡아 당겨 힘을 써도 아픈 줄을 모르도록 단련한다(그들의 등가죽에 밧줄을 꿰어 당기거나, 낚시 줄을 걸어 당기는 것). 이것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단단히 하는 외에 또 몸을 튼튼히 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후한서》<동이전, 한(韓)>

《삼국지》에 전하는 기록을 통해 전쟁에 대비하여 젊은이들을 단련시키는 훈련 과정이 바로 Kavadi Attam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문화는 현재 타밀 지역 사람들이 진출한 Mauritius, Singapore, Malaysia, Reunion island 그리고, UK, Germany, France,

Italy, South Africa 등등의 여러 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한반도 마한 시절의 이 풍습 또한 그런 현상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김해 대성동 57호 고분에서 출토된 순장자의 뼈 유전자와 타밀인의 유전자가 85.7%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해, 마한의 풍습은 타밀 인이 직접 이주하여 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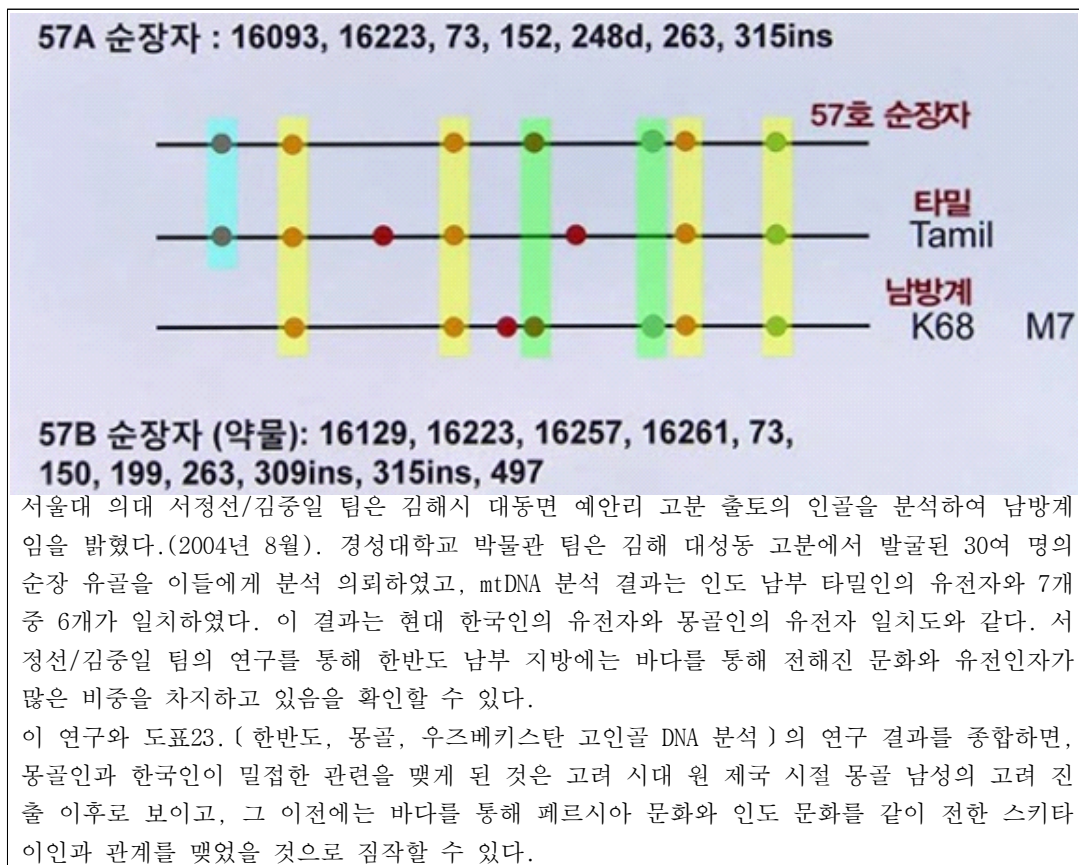


도표22. (인도 남부 타밀인과 김해 대성동 57호 고분 유골 DNA 비교)

태평양 지역

대륙의 문화는 태평양의 섬에 거의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데, 태평양 문화의 큰 변화는 { BC 1500, BC 1350, BC 826-750, BC 250, AD 100, AD 400, AD 800-900 }에 있어났었고, 이 연대는 중국과 그 주변 지역의 큰 정치적 사건과 거의 일치한다. 아마 이 시기에 대륙의 정치적 변동을 피해 태평양으로 진출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대륙과 태평양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태평양의 동쪽 끝 섬에 해당하는 하와이의 종교와 신화를 참고하기로 한다.

하와이 신화의 Kū 또는 Kū-ka-ili-moku(, Kūka'ilimoku, "땅을 차지한 자")는 Kanaloa, Kāne, 그리고 Lono와 더불어 위대한 4 신 중의 하나인데,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다.

하와이 어 Kū는 '흥기(興起), "standing up"'라는 뜻이고, 'Kū, Kāne, 그리고 Lono'는 세상을 비추는 빛을 만들어 내는 자존(自存)의 신이다. 그리고 백제 고이왕과 같은 업적을 남긴 하와이의 왕은 8개의 큰 섬과 130여 개의 작은 섬을 최초로 통일한 카메하메하 1세 (Kamehameha I, 1738-1819)이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Keōua Kalanikupuapa'kalaninui 인데, Keōua를 한자로 표기하면 고이(古爾[gŭ][ər])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하와이 어 Kumu는 "스승(teacher)"이라는 뜻인데, 이는 백제 고이왕의 다른 이름 고모(古慕[gŭ][mù])와 일치한다. 이렇게 약 15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백제와 하와이 왕의 이름이 서로 통하는 것은, 두 지역이 문화적으로 하나의 울타리였고, 대륙에서 해양으로 진출하였던 ㅁ-(, ㅁㅁ, ㅁㅁ) 문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Kui는 Māori 족의 신화에 나오는 Tuputupuwhenua 아내이면서, 지하에 사는 반신반인(半神半人)이고, Tuamotu 제도에서는 Rata(타히티 신화의 왕, 그의 아버지는 Vahieroa이고, 삼촌은 Tumu-nui 왕이었다)의 조부이면서, Vahi-vero의 아버지의 이름이다. 태평양 지역의 ㅁ-(Kū, Kui)는 ㅁ- 문화의 전파를 의미한다. 태평양의 기(器) 문화와 「우공귀방」(孟攻鬼方)을 고려하면, 그것이 전파되었던 시기는 '상 말기-서주 시대'(1350-750 BC)였고, 이는 본격적인 철기문화의 보급연대와 거의 맞물려 있다.

유럽·기타 지역

Kumarbi는 천신의 아들이고 폭풍 신의 아버지라는 점에서, 'Ku'는 천둥번개 신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것은 북유럽 에스토니아와 핀란드의 신화에 나오는 천신, 천둥과 폭풍(thunder, weather), 수확 그리고 다른 자연 현상의 신 Ukko 또는 Uku에서 확인할 수 있다. Uku(=U+ku), Ukko는 종종 Äijä 또는 Äijö (핀란드어로 "조부(祖父), 노인, 천둥")로도 불리는데, 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유일한 토착 원주민이랄 수 있는 Sami(, Sámi 또는 Saami) 족이 숭배하는 Aijeke(, 또는 Ajeke)와 거의 비슷한 신이다.

'조부 또는 증조부'라는 의미의 Aijeke는 천둥신인데, 번개를 상징하는 못을 정수리에 박고, 해머를 몸에 걸친 장승으로 묘사된다. 해머가 상징하는 것은 대장장이이고, 이는 제철기술의 전파와 관계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던 철기문화 ㅁ-문화인의 후손들과 관련된 것이 에스토니아 신화 서사시 《Kelev》<제9편 철의 기원>의 내용일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앙골라·일본·나가사키·네팔·수단·에스토니아의 도시 이름 Uku, 콩고공화국의 강의 이름 Uku, 그리고 남미 잉카 신화의 지하세계를 나타내는 말 Uku Pacha, 이를 통해 Uku는 아프리카에서 남미 지역에까지 철기 문화가 보급된 지역에는 거의 다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④철기시대 신(新)만드 문화

이렇게 철기문명과 쿠-문화가 전파되어갈 때, BC 1070의 기온 변화를 겪고 나서 기온은 잠깐 동안 다시 상승하여 늦여름소리 ‘ㅁ·ㅂ·ㅍ 문화’ 시대의 기온 상태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늦여름소리시대 ㅁ 문화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당시 이란 주변의 나라는 메디아처럼 거의 모두 ㅁ 음으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는 ㅁ 문화를 그들의 지표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널리 알려진 ‘미다스의 손(Midas touch)’은 BC 2000년대에 살았다고 믿어지기도 하는데, 각종 기록에 Midas(,또는 Mita)라는 이름은 8세기 말-7세기 BC에 프리지아(,고대 아나톨리아의 중서부지방)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많이 등장한다. 이때의 ㅁ드는 신(新)ㅁ드로 부를 수 있고, BC 678에 세워진 이란의 메디아는 바로 신(新)ㅁ드(Māda-) 문화국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청동기 시대의 ㅁ드를 철기 시대의 ㅁ드로 개량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계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이 재정립된 철기 시대 ㅁ드 문화는 Ahura Mazda를 최고신으로 삼아 정립된 조로아스터교(Zoroastrianism 또는 Mazdaism)에 많이 남아 있다. Mazdaism의 기원은 BC 2천 년대 초로 올라가는데, 현재 널리 알려진 것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648-330 BC) 시절에 체계화된 것이다.